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2020. 2.

국방기술품질원

이 면은 공백임

요 약

본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에 관한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다. 본 보고서는 말레이시아의 군사안보, 정치 경제 환경과 말레이시아의 조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 및 역량 등을 분석하였으며, 수출 유망분야와 말레이시아 방산수출에 관한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군사 현황, 국제 군사협력 현황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그리고 정치 제도 및 경제 정책 등 말레이시아 방위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대내·외 환경 현황 및 변화 양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조달 제도 및 유형과 말레이시아가 방위산업에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산업협력 프로그램(ICP) 정책 및 제도, 조달 및 획득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록하였다.

제3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국방 예산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분야별 주요 무기 체계 획득 및 조달 사업, 말레이시아 방산 수출·입 시장의 역동성에 관한 분석을 담았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주요 방산기업과 이들의 경쟁 구도, 진출해 있는 국외 방산기업의 진입전략 및 목표, 분야별 현지 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국가 간 협력현황을 담았다.

제5장에서는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환경 요약과 SWOT 분석으로 도출한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수출 유망분야 또한 제시함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이 실제로 수출 전략을 구상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록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사회 문화를 고려해 비즈니스 시 주의할 점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 및 통계자료는 말레이시아 산업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 소개서 및 가이드라인, 외교부의 말레이시아 개황, 산업연구원의 세계 각 국 절충 교역 연구보고서, KOTRA의 국가지역정보 및 세계시장 진출전략, Janes Defense/IHS Markit사, GlobalData Intelligence사의 방산시장 관련 다양한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Contents

요 약

제1장 방위산업 환경 1

제1절 군사 및 안보 환경	3
1. 군사현황	3
2. 국제 군사협력	10
3. 안보 환경	12
제2절 정치 및 경제 환경	13
1. 정치 환경	13
2. 경제 환경	17

제2장 국방조달 환경 22

제1절 국방 조달제도 및 절차	23
1. 조달제도 개관 및 유형	23
2. 관리조직 및 조달 절차	24
제2절 산업협력 프로그램	28
1. 도입 배경 및 관련 법령	28
2. 담당부처 및 업무절차	29
3. 주요 내용	32
4. 시행 사례	34



제3장 방위산업 시장

37

제1절 국방 예산 현황 및 전망

39

1. 국방 예산 현황

39

2. 국방 예산 전망

41

3. 예산편성 절차

42

제2절 주요 조달 사업

44

1. 진행 중인 조달사업

44

2. 향후 조달 예상 사업

47

제3절 방산 수출·입 시장 역학

58

1. 수출시장의 역동성

58

2. 수입시장의 역동성

61

제4장 방위산업 역량

67

제1절 방산시장 수입 및 경쟁 현황

69

1. 방산시장 수입 현황

69

2. 방산시장 경쟁현황 및 구도

72

제2절 방산기업 진출 및 협력 현황

74

1. 국외방산기업의 진입전략 및 목표

74

2. 분야별 방산기업 및 국외 기업과의 협력

76

3. 국가 간 협력상황

79

Contents

제5장 시장 진출 전략	81
제1절 방산시장 환경 및 SWOT 분석	83
1. 방산시장 환경 분석	83
2. 방산시장 SWOT 분석	84
제2절 진출전략	86
1. 중개기업 및 에이전트 확보	86
2.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구축	91
3. 기술이전	98
4. 현지 방산 전시회 활용	99
제3절 수출 유망분야	104
1. 국방 M&S 분야	104
2. 기타 분야	105
 부 록	
1. 거래 시 유의사항	111
 참고문헌	117



표목차

[표 1-1] 말레이시아 군별 인력 현황	5
[표 1-2] 말레이시아의 군별 병력, 주요부대 및 장비	5
[표 1-3] 말레이시아 육군의 운용 무기체계 보유현황	6
[표 1-4] 말레이시아 해군의 운용 무기체계 보유현황	7
[표 1-5] 말레이시아 공군의 운용 무기체계 보유현황	8
[표 1-6] 말레이시아의 군별 중점 추진 과제	9
[표 1-7] 군사 교류협력 현황	11
[표 1-8] 주요 군부인사 상호방문	11
[표 2-1]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가치승수	33
[표 3-1] 말레이시아의 연도별 국방예산	39
[표 3-2] 말레이시아 거시경제 지표 및 국방비 지출 현황	40
[표 3-3] 말레이시아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및 전망	41
[표 3-4] 말레이시아 2019~2028년 주요 획득 전망	47
[표 3-5] 2019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48
[표 3-6] 2020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49
[표 3-7] 2021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0
[표 3-8] 2022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1
[표 3-9] 2023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2
[표 3-10] 2024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3
[표 3-11] 2025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4
[표 3-12] 2026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5
[표 3-13] 2027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6
[표 3-14] 2028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57
[표 3-15] 말레이시아 2009~2018년 무기 수입 현황	63
[표 4-1] 국외방산기업의 진입전략 및 목표	75

Contents

[표 4-2]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항공)	76
[표 4-3]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지상)	77
[표 4-4]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해상)	77
[표 4-5]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지휘통신체계)	78
[표 5-1]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SWOT 분석	84
[표 5-2]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SO, ST, WO, WT 전략	85
[표 5-3] D4B 등록 말레이시아 방산에이전트 내역	86
[표 5-4] 2017년 MIDES 소속 우수기업	92
[표 5-5] DSA 2018에 참여 기업 및 전시품목	100
[표 5-6] DSA 2018 참가 기업별 주요 성과	101
[표 5-7] DSA 2018 BtoG 미팅 내역	101
[표 5-8]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02
[표 5-9] 말레이시아 상위 10개 방산 분야	105



그림목차

[그림 1-1] 말레이시아 국방조직 및 지휘계통	4
[그림 1-2]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구성	14
[그림 2-1] 말레이시아 방위산업국(MIDES) 조직도	25
[그림 2-2] 말레이시아의 국방 조달 절차	26
[그림 2-3] 말레이시아 입찰 신청 절차 샘플	27
[그림 2-4]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주요 기관 및 추진절차 현황	30
[그림 2-5] 말레이시아의 국가전략산업 절충교역 우선순위	31
[그림 3-1] 말레이시아 국방예산 현황 및 향후 전망	41
[그림 3-2] 말레이시아의 예산 편성 절차	42
[그림 3-3] 말레이시아 2019~2028년 주요 획득 규모	47
[그림 3-4] 말레이시아 2009~2018년 국가별 무기 수출 규모	58
[그림 3-5] 말레이시아 2009~2018년 국가별 무기 수출 비중	59
[그림 3-6] 말레이시아 2009~2018년 무기 수출 현황	59
[그림 3-7] 말레이시아 2009~2018년 국가별 무기 수입 규모	61
[그림 3-8] 말레이시아 2009~2018년 장비별 무기 수입 비중	62
[그림 5-1] 전시회 참가 및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절차	103
[그림 5-2] 말레이시아 내 프리깃함 시장 규모	106
[그림 5-3] 말레이시아 내 시설보안 시장 규모	107
[그림 5-4] 말레이시아 내 콜베트 함 시장 규모	108

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1 장

방위산업 환경

제 1 장

방위산업 환경

제 1 절 군사 및 안보 환경

제 2 절 정치 및 경제 환경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군사 및 안보 환경

1. 군사현황¹⁾²⁾

가. 국방정책

- 말레이시아의 군 통수권자는 국왕이며, 국방정책은 크게 국가의 전략적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지리적으로 3중 방어 개념(근접, 지역, 전 지구적)이 적용되며 자주, 지역안보 협조, 글로벌 지원을 기본원리로 하여 국방을 운영한다.
- 말레이시아의 국왕은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로, 총리와 내각의 보좌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의 국방장관은 민간정치인으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수행한다.
- 말레이시아는 국방장관 예하에 민간부문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차관과 군사부문을 보좌하는 군 총사령관을 둔다. 사무차관 예하는 장기 근무 민간인으로 충원하여 전문성을 유지한다.
- 말레이시아는 자주국방 추구를 통해 국가이익과 안보를 보호하며, 근접, 지역권에서 독자적인 방위력과 지속가능한 능력을 확보하고, 아세안과 안보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함을 골자로 군사전략을 추진한다.
- 말레이시아는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매년 각 군별로 모집공고를 통해 장교 및 사병을 충원한다. 자격으로 장교는 학사 이상 학위, 사병은 고등학교 졸업자일 것을 요구하며, 각 군의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모집한다. 2003년도 National Service 제도를 도입하여 만 18세 남녀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의무복무 제도를 잠시 시행하였으나, 2018년 8월 마하티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부족 및 부실 운영 문제 등으로 이는 공식 폐기되었다.
- 말레이시아 국방조달 지출은 2019년 8억6천만 달러(약 9,958억 원)에서 2023년에는 9억8천만 달러(약 1조 1,34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태껏 수시로 필요시에 특별 예산을 추가 할당하여 주요 획득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 예로, 말레이시아는 AV8 8×8 전투용 장갑차량과 차기 연안경비정 획득 프로그램을 연간 국방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으로 획득했다. 이 같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2)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나. 군사력

- 말레이시아의 군사조직은 아래와 같이 국방부 행정분야는 사무차관이 총괄하고 육해공군 등 야전군은 총사령관이 총괄 지휘한다.



[그림 1-1] 말레이시아 국방조직 및 지휘계통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총 10만 여명의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군별 인력은 아래와 같다.

[표 1-1] 말레이시아 군별 인력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병력	50,000	18,000	15,000	113,000

말레이시아의 군사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말레이시아의 군별 병력, 주요부대 및 장비

군별	병력	주요 부대	주요 장비
육군	8만	• 1개 야전사령부 • 4개 보병사단 • 8개 보병여단 • 1개 특수여단 • 1개 기계화보병여단 • 1개 공수여단 • 5개 포/공병여단 • 5개 기갑연대 • 1개 항공대대 • 3개 방공포연대	• 주력전차 48대 • 경전차 26대 • 장갑차/정찰차량 1,100여 대 • 견인포 164문 • 다연장로켓포 54문 • 대공미사일 103문 • 박격포 254문 • 대전차 무기 328문 • 수송헬기 11대
해군	1.5만	• 2개 함대사(동부, 서부) * 예하 3개 해역사 (쿠안탄, 랑카위, 센다칸)	• 리게이트함 8척(LCS 6척 포함) • 초계함 6척 • 경비함 6척 • 고속정 35척 • 다목적 군수지원함 2척 • 소해함 4척 • 보급/지원함 13척 • 헬기 12대
공군	1.5만	• 공군 작전사 • 2개 지역 비행 사단 • 8개 비행 기지 • 7개 전투기 대대 • 5개 수송기 대대 • 1개 정찰기 대대	• 전투기 21대 • 지상공격전투기 26대 • 정찰기 4대 • 급유기 4대 • 수송기 32대 • 훈련기 80대 • 헬기 50대

❖ 말레이시아의 군별 주요 무기체계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3] 말레이시아 육군의 운용 무기체계 현황

구분	무기체계	제조사	역할	최초획득	현운용	획득년
Tracked	ACV-300	FNSS Savunma Sistemleri	Infantry fighting vehicle	259	259	2002
	KIFV	Doosan	Infantry fighting vehicle	111	111	1993
	PT-91M	Zakłady Mechaniczne Bumar Labedy S.A	Tank	48	48	2007
	Scorpion 90	BAE Systems	Reconnaissance	26	14	1983
	Stormer	BAE Systems Land(UK)	Armoured personnel carrier	25	13	1983
Wheeled	AV-8 Gempita		Infantry fighting vehicle	257	118	2014
	Condor APC	Rheinmetall	Armoured personnel carrier	459	300	1982
	Guardian APC		Armoured personnel carrier			
	Saxon APC	BAE Systems Combat Vehicles UK	Armoured personnel carrier	40	40	
Army Aviation	MD 530G	MD Helicopters	Attack	6	6	2018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1-4] 말레이시아 해군의 운용 무기체계 현황

구분	무기체계	제조사	역할	최초획득	현운용	획득년
Auxiliaries	Converted 699 TEU		Anti-piracy escort	2	2	
	Fast Troop Vessels	Naval Dockyard	Transport	2	2	2001
	Hang Tuah(Type 41/61)	Yarrow Shipbuilders	Training ship	1	1	1973
	Kepah	Asahi Zosen	Tug-ocean	1	1	1976
	Logistic Support Ship	Bremer Vulkan	Support ship	1	1	1980
	Logistic Support Ship	Korea Tacoma	Support ship	1	1	1983
	Mega Bakti	Keppel Singmarine	Submarine rescue ship	1	1	2012
	Mutiara	Hong Leong-Lurssen	Survey ship	1	1	1978
	Penyu	Selco Shipyard	Tug-ocean	1	1	1965
	Perantau	Hong Leong-Lurssen	Survey ship	1	1	1998
	Tunas Samudera	Brooke Yacht	Training ship	1	1	1989
Submarines	Tunda Satu		Tug-harbour		1	1978
	Scorpena	DCN/Navantia	Attack	2	2	2009
Surface fleet	31 metre patrol craft	Vosper Ltd	Patrol craft	2	2	1968
	Combatboat 90HEX	Dockstavarvet	Patrol craft	17	17	1997
	Handalan(SPICA-m)	Karlskrona	Fast attack craft-missile	4	4	1979
	Jerong	Hong Leong-Lurssen	Fast attack craft-gun	6	6	1976
	Kasturi(Type FS 1500)	Howaldtswerke	Corvette	2	2	1984
	Kedah(MEKO 100 RMN)	Blohm + Voss/Penang Shipbuilding/Boustead Naval Shipyard	Corvette	6	6	2006
	Laksamana	Fincantieri	Corvette	4	4	1997
	Lekiu	Yarrow Shipbuilders	Frigate	2	2	1999
	Mahamiru(Lerici)	Intermarine	Minehunter	4	4	1985
	Perdana(La Combattante II)	CMN	Fast attack craft-missile	4	4	1972
Naval Aviation		Bremer Vulkareo Tacoma	Logistic support ship	2	2	1980
	Super lynx 300	Leonardo	Attack	6	6	2003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1-5] 말레이시아 공군의 운용 무기체계 현황

구분	무기체계	제조사	역할	최초획득	현운용	획득년
Fixed-wing	A400M Atlas	Airbus Defence&Space	Medical	4	4	2015
	BBJ	Boeing Business Jets	Transport	1	1	2003
	C-130H-30	Lockheed Martin Aeronautics Company	Medical	9	9	1992
	CN235 Series 220	Airtech	Transport	8	7	1999
	F/A-18D	Boeing Defense Space and Security	Attack	8	8	1997
	F28 Mk 1000	Fokker Aerospace BV	Transport	2	1	1975
	Falcon 900	Dassault Aviation	Transport	1	1	1990
	Global Express	Bombardier	Transport	2	1	2000
	MiG-29N	MiG	Fighter	16	6	1995
	Su-30MKM	Kompania Sukhoi OAO	Anti-ship	18	18	2007
Rotary-wing	EC 120		Transport	5	5	
	S-61N	Sikorsky	fighting	2	2	1990
	S-70A-34	Sikorsky Aircraft	Transport	2	2	1997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다. 군 현대화 동향

- ▶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영유권 분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동부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태국과의 잦은 국경 갈등과 빈번한 해적의 침입 및 불법 이민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국경을 접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군사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 현재 말레이시아의 장기 군 현대화 계획의 주된 목표는 전력 기획을 위협 기반에서 능력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을 강조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핵 보유 및 생산, 비축, 사용 금지에 관련된 모든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핵뿐만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앞으로도 고강도 보다는 저강도의 전투능력 향상에 힘을 쏟을 것이다.
- ▶ 말레이시아의 군 개혁 의지는 2009년 4D-MAF(Fourth demension malaysian armed forces)로 형상화되었다. 4D-MAF 계획은 최소 202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로 3가지 분야(3군 통합 운용, 정보 우위, 해상 · 지상 · 공중 · 정보전의 다차원적 운용)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말레이시아 군은 이전에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 (2011-15)으로 4D-MAF 계획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록 이는 모두 수행되진 못했지만, 말레이시아 군은 현재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2016-20)을 진행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안 안보 이슈들에 대처하고 있다.
- ❏ 말레이시아의 군 현대화는 사업은 4차원 전장에서 합동성과 정보 우위의 전력을 건설하고, 동부 사바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과 정찰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다.
- ❏ 군별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6] 말레이시아의 군별 중점 추진 과제

군 구분	추진과제
육군	• AV-8 주력장갑차 도입, 기동 및 화력 분야 효율성 제고 • 지상 방공 능력 강화 • 육군항공사령부 창설 추진
해군	• 남중국해 중요성 고려 동부함대사령부 창설 완료 및 동부함대사 예하 사라왁주 신규 해역사령부 창설 추진 • 15-5 함대 현대화 추진
공군	• 해상항공초계기 확보 • 노후 전투기 및 헬기 교체

2. 국제 군사 협력³⁾⁴⁾

가. 해외 군사 협력

- 말레이시아는 유엔 PKO 및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9년에는 동티모르에 파병했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파병했다. 또한, 2008~2009년에는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2008~2009년 필리핀에는 민다나오 지역에 평화감시단을 파견하였다.
- 또한 2005년 8월 중국과 국방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 미국은 매년 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싱가포르/태국을 4개월간 순회하면서 CARAT(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을 실시하고 있다.
- 말라카 해협 해적 활동 감시를 위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연합 공중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1993년 군사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기적으로 육·해·공군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2년마다 육·해·공 연합훈련을 각 1회씩 실시하며, 태국과는 수시로 국경회담을 개최하고 육·해·공 연합훈련을 각 2회씩 실시한다.
- 말레이시아는 서태평양 기뢰대향전 연합훈련을 주최하고 있다. 참가국으로는 한국,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태국, 호주가 있다.
- 2017년부터는 술루해 해양안보를 위해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삼국이 공동경비를 시행하고 있다.

나. 한국과의 군사 협력

-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상호 무관부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1966년 주말레이시아 한국 무관부가, 1981년에는 주한 말레이시아 무관부가 설치되었다.

3)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4)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 무관부 개설

駐말레이시아 한국무관부 : '66. 6. 개설

駐韓 말레이시아 무관부 : '81. 2. 개설

[표 1-7] 군사 교류협력 현황

분 야	내 용
협 정 체 결	항공협정 ('67.3.), 항공협정 개정 ('73.4.)
추 진 사 항	•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구매 사업에 한국산 FA-50 수출 추진 中 • 아세안 중심 다자안보협의체 및 서울안보대회를 통해 국방협력 증진 노력
군사교육 교류	• 해군사관학교 순항훈련부대 및 청해부대, 말레이시아 기항 • 상호 교환학생 파견 - 한국 측 : 합동군사대, 국방대 - 말레이시아 측 : 참모대

- ❖ 양국의 군사교육 교류는 활발한 편인데, 2018.3월 말레이시아 해군의장대에 한국 의장대 교관을 파견하였다. 공군조종사 상호 교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해사 순항부대와 청해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또한 지휘참모대 교육을 파견했고, 말레이시아 장교가 우리 국방대학원으로 파견된 적도 있다. 한국의 합참대와 국방대생들은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었다.

[표 1-8] 주요 군부인사 상호방문

말레이시아 방문	한국 방문
	'96. 10. 하미드 국방장관 '07. 3. 나집 부총리 겸 국방장관 '09. 10. 하미디 국방장관

- ❖ 현재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 체결을 추진 중이며, 양국 간 정보교류회의는 매년 상호 교차하여 개최하고 있다.

3. 안보 환경⁵⁾⁶⁾

- 말레이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협은 크게 해상 위협, 테러, 자연재해이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군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먼저 해상 방위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국가로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 남중국해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무역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이 국가 안보 환경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말레이시아의 대응보다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잇따른 테러들로 인해 말레이시아 역시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를 주시하고 있다. 2016년 IS는 말레이시아의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를 자행했으며, 2016년과 2017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 IS 요원이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킨 IS요원의 국적이 말레이시아로 밝혀졌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반(反)테러작전은 경찰 관할이지만, 군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승인을 얻을 시에 이를 보조할 수 있다.

5)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6)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제 2 절 정치 및 경제 환경

1. 정치 환경⁷⁾⁸⁾

가. 정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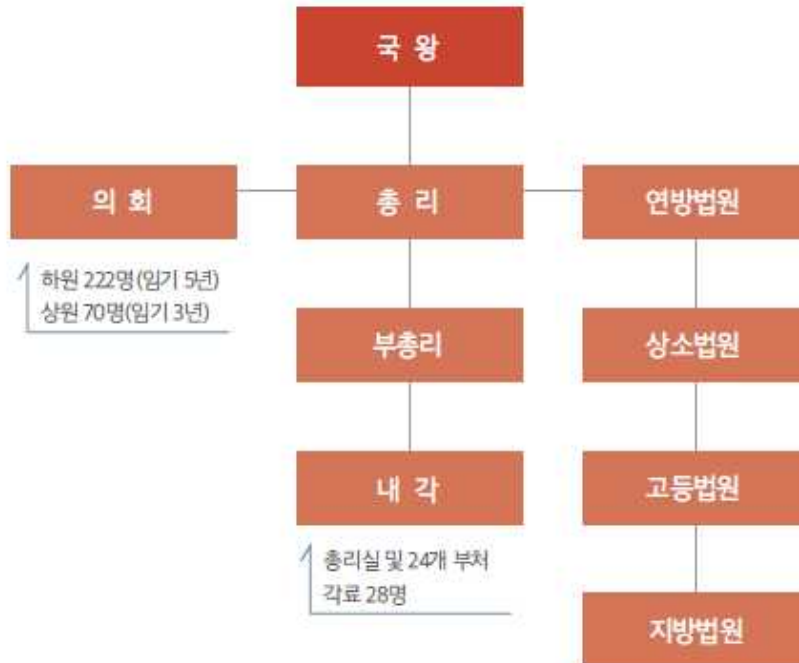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배 하에 있던 이슬람계 술탄국들이 독립하여 결성한 연방 민주주의 국가로, 영국의 영향을 받아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 내각은 총리실과 24개 부처로 구성된다. 내각 인원은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하여 총 28명이다.
- 총리는 국왕이 하원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 하원의원을 총리로 임명한다. 기타 각료들은 국왕이 총리 추천에 따라 하원의원(일부 상원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2018년 5월 마하티르 총리가 취임하였다.
- 말레이시아 내 13의 주(州) 중 9개 주의 술탄 중에서 선출된 국왕(Yang di-Pertuan Agong)이 5년을 임기로 하여 왕위에 오른다. 현재 국왕은 클란탄(Kelantan) 주 술탄인 무하마드 5세 (Muhammad V)로, 2016년 12월 13일에 왕위에 올랐다.

7)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8)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이 총리가 24개 부처를 관장하고 있다.

[그림 1-2]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구성



* 출처 :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 1957년 독립한 이래,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Bumiputra, 말레이시아계 원주민) 정책이라는 말레이 민족을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미푸트라란 말레이시아 원주민 후예라는 뜻으로, 부미푸트라 정책은 정부가 말레이계 및 사바·사라왁 원주민에게 펼치는 특별 우대 정책이다. 1969년 인종폭동이 발생하자 집권 연정 내 핵심 정파 UMNO당(말레이계)과 MCA당(중국계)은 폭동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국계 신변 안전과 상공업 활동은 보장하되 부미푸트라에게 특혜 부여라는 정치적 절충안에 타협하며 이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 연방 헌법에서는 부미푸트라에게 교육(대입 전형, 장학금), 정부·공공기관 취업, 상업 비즈니스(세금, 입찰, 인허가 등)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며, 상기 헌법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는 1,700 달러(약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 부미푸트라 정책은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한 예로 대학 입시에서 부미푸트라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방 입찰에서도 부미푸트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적인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말레이 민족에게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은 말레이 민족들의 빈곤률을 감소시켰지만, 말레이시아 내 군 획득 사업에서 부패를 증가시키고 인종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나. 정치 동향

- 현재 총리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장기 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Mohamad)으로, 1981-2003년에 4대 총리로 부임한데 이어 2018년 5월 10일에도 7대 총리로 임명되었다. 마하티르 모하맛은 파카탄 하라판(Pakatan Harapan, 희망 연대) 야당연합의 총수이다. 파카탄 하라판은 2015년 기존 야당연합체 국민연대(Pakatan Rakyat)이 와해된 이후 설립된 야당연합체로, 2018년 5월 14대 총선에서 독립 후 최초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 새 정권은 'New Malaysia(Malaysia Baru)'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패, 척결, 제도 개혁, 정부 부채 경감 등의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군 현대화도 포함되어 있다.
- 현 정권은 말레이시아 사회통합을 강화하면서 세계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가 장기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969년 인종폭동 이후 국가적 단결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식 교육 언어를 영어에서 말레이어로 교체했으나 최근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2003년 1월부터는 영어 기능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수학과 과학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였으나, 2012년 다시 말레이어로 전환했다.
-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계획 'Vision 2020'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단지 사이버자야(Cyberjaya)를 건설하는 등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말레이계를 우대하던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 관련하여, 새 정권은 민족 및 종교 간 조화를 증진시키고 말레이계의 독립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계 및 인도계에게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과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12월 정당대회 등에서 본인은 임시 총리로, 취임 후 2년 내 물러날 것이라고 밝혀왔다. 여당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마하티르 총리가 실제로 2년 내에 Anwar Ibrahim PKR 당대표에게 총리직을 넘겨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 대외정책

- 말레이시아는 비동맹·온건중립·명분 중시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슬람 국가 및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역할과 이미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통합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등 지역협력을 주도하면서 UN·비동맹·영연방·이슬람회의기구(OIC)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2018년 5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마하티르 총리는 과거 집권기에 진행됐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재활성화와 비동맹 외교정책(Non-Aligned foreign policy) 강화, 후발 개도국들과의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재차 강조하였다.
- 사이푸딘 외교장관은 2019년 신년 메시지에서 신정부의 외교정책 프레임의 중심은 ‘보다 평화롭고 공정하며 발전하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Peaceful, Fair and Prosperous World)’라고 발표하였다.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한 2015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했고, 아세안+3 (한·중·일) 협력 체제를 통해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2015.12.) 및 역내 관세 철폐(2018.1.) 등 역내 결속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신정부는 공약으로 ‘아세안 정치·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할 강화’를 규정하는 등 아세안 지역협력을 핵심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인구의 22%가 중국계인 말레이시아는 1974년 5월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양국 간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아세안 국가 첫 방문지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 현 마하티르 총리는 재집권 전후 중국 기업의 인색한 기술이전 등과 관련하여 중국 자본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남중국해 문제 관련 강경 발언을 하는 등, 일정 부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 환경⁹⁾¹⁰⁾

가. 경제 제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결성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일본과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중국과는 아세안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였다.
- 또한 환태평양파트너십(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회원국으로서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등 다자 차원 무역 자유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 비동맹 국가 등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이슬람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슬람금융, 중동 건설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관계도 원만하여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나. 경제 동향

- 말레이시아 경제는 연평균 5% 수준(2016~2018)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및 민간부문 소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18년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중국 간 무역 긴장 심화,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 * 2016년 4.5(% , 전년동기 대비) → 2017년 5.7 → 2018년 상반기 4.7 → 2019년 상반기 4.7
- 링깃화 가치*는 2017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확대,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2018년 2/4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이탈,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다.
- * 2016년 말 4.486(RM/USD) → 2017년 말 4.062 → 2018년 말 4.139 → 2019년 9월 말 4.187
-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이후 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잠시 올랐으나, 2018년 이후 기저효과,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과세 대상 품목 감소 등으로 크게 하락했다.
- * 2016년 2.1(% , 전년동기 대비) → 2017년 3.8 → 2018년 1.0 → 2019년 상반기 0.2

9)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10)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 2018년 9월 1일부터 물품용역세(GST)를 대체하는 판매·서비스세(SST) 제도 시행**

- 고용시장은 신규 노동 공급 규모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 규모가 균형을 이루며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실업률(% , 기간 중 평균) : 2016년 3.45 → 2017년 3.43 → 2018년 3.23**

- 말레이시아 투자 환경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특히 도로, 항만, 전력, 교육 및 영어 능력 등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각종 투자 환경, 경쟁력 비교에서도 예전보다 약간 후퇴했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IMD의 국가경쟁력 지표 : 2018년 22위 (2017년 24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표 : 2018년 15위 (2017년 24위)

- 민간투자(내국인+외국인)는 말레이시아 투자 승인 기준, 2018년 484억 달러로 전년(481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248억 달러), 제조업(210억 달러), 1차 산업(26억 달러) 순이다.

- 2018년 FDI는 193억 달러이며, 제조업(139억 달러), 서비스업(40억 달러), 1차산업(10억 달러) 순이다. 2003년 7월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완전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 미국-중국 무역분쟁 심화 등이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민간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이 2018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바, FSMP 2001-2010에 이어 2011년 12월부터 정부의 고부가가치, 고소득 경제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청사진(Financial Blueprint) 2011-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금융 청사진의 주요 목표는 효과적 금융 중개, 금융시장 심화, 금융포용 강화, 지역·국제 금융 통합 강화, 이슬람금융 국제화, 지배구조·위험관리기법 향상, 전자결제 통한 경제 효율성 증대, 소비자 역량강화, 금융부문 인재 개발 등이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부문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2016년 말까지 상기 목표의 41%를 달성하고 44%는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었으며 9%는 착수 검토 중에 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포용성 제고, 지역·국제

금융 통합, 전자결제시스템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동남아 내 경제 부국이었으며, 1977년까지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다. 1990~1997년 말레이시아의 평균 연간 경제성장률은 동아시아 내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9%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은 거의 항상 상승곡선을 그렸다. 금융위기 이후 2000 ~2008년 사이 말레이시아의 평균 연간 경제성장률은 5%였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2016년 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경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출 증가와 유가 안정화로 말레이시아 경제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22%인 중국계가 대부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동남아 화교 및 중국·대만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강력하다. 정부는 인종 간 부의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세제 혜택 부여 등 이슬람금융 우대 정책을 통해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현재 이슬람금융 이용 및 기법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은행 및 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슬람 채권인 수쿱(sukuk)은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 2018년 신정부가 출범하며 공표한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국가부채는 1조 링깃(약 2,5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지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 이미 많은 획득 프로그램이 지연되었고, 현재 말레이시아는 사회 복지 향상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계획한 상태이다. 이에, 향후 군 획득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로 보아 말레이시아 군 현대화가 근시일 내에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2장

국방조달 환경

제 2 장

국방조달 환경

제1절 국방 조달제도 및 절차

제2절 산업협력 프로그램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국방 조달제도 및 절차

1. 조달제도 개관 및 유형¹¹⁾

- 말레이시아는 국방 조달과 관련해서도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부미푸트라 소유 기업들에게만 실시하는 한정 입찰에서 알 수 있다.
- 말레이시아의 조달 및 입찰은 「금융조달법」, 「정부계약법」을 비롯하여 관련 재무부 지침과 재무부가 고시·공지한 내용 등을 통해 규율된다.
- 700만 링깃(약 20억 원) 이상의 획득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하며, 700만 링깃 이하의 프로그램은 국방부의 조달 위원회가 감독한다. 법무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 법무부 소관이다.
- 지명 입찰과 직접 입찰의 경우, 조달 규모가 5만(약 1,420만원)~20만 링깃(약 5,700만원)이라면 최소 5개의 기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 특히, 조달 규모가 5만~10만 링깃(약 2,850만원)일 경우는 최소 5개의 부미푸트라 기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
- 국방 조달 시 입찰 유형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공개 입찰 : 통상 20만 링깃(약 5만3천 달러) 이상 규모의 조달 사업에 사용된다. 사전에 후보 기업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 부미푸트라 기업에 대한 공개 입찰 : 부미푸트라(Bumiputra, 말레이시아 원주민)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한다.
 - 지명 입찰 : 통상 100만 링깃(약 2억 9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조달사업에서 적용된다.
 - 직접 입찰 : 5만5천 링깃(약 1억 4천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조달사업에서 적용된다.

11)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2. 관리조직 및 조달 절차

가. 관리 조직

- MINDEF(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획득 프로그램의 기술적,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획득 결정을 내리며, 최종 법적 검토는 법무부에서 제시한다.
- 국방부 획득국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or Defence, STRIDE)와 절충교역기술국(Technology Depository Agency, TDA)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이 두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으며, 재무부는 말레이시아 산업협력 프로그램에서 어느 기업이 절충교역 의무를 부담할지를 관할한다. 이외 관련 기관들 역시 관여할 수 있다. 대부분 국방부가 계약을 담당하며 재무부도 어느 정도 참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총리실(www.pmo.gov.my/home.php.)이 전적으로 관리할 때도 있다.
- STRIDE와 TDA는 말레이시아 산업협력프로그램(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을 담당 기관으로, 절충교역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 재무부 및 국방부 측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는 입찰 운영위원회는 입찰 개최와 더불어 정부 관보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 국방부 획득국은 700만 링깃(약 20억원) 이하 규모의 조달 사업을 담당하며, 입찰의 기술적인 사안을 평가하는 하부 위원회와 예산 사항을 검토하는 하부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 기타 말레이시아 방산 관련 주요기관으로는 방위산업국(Malaysia Defense Council for Defense, Enforcement and Security, MIDES)가 있다. 방위산업국은 1999년 MDIC(Malaysia Defense Industry Council, 말레이시아 방산위원회)로 창설되어 2010년 국방, 경찰 및 안보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MIDES로 확대되었다. 방위산업국의 의장은 국방장관이며 27명의 회원(국방부, 경찰, 안보관련 정부기구, 기업대표), 6개 그룹(Aerospace, Automotive, Common Users Items, ICT, Maritime and Weapon)으로 구성된다.
- 방위산업국은 아래와 같이 국장 산하에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조달 절차¹²⁾

[그림 2-2] 말레이시아의 국방 조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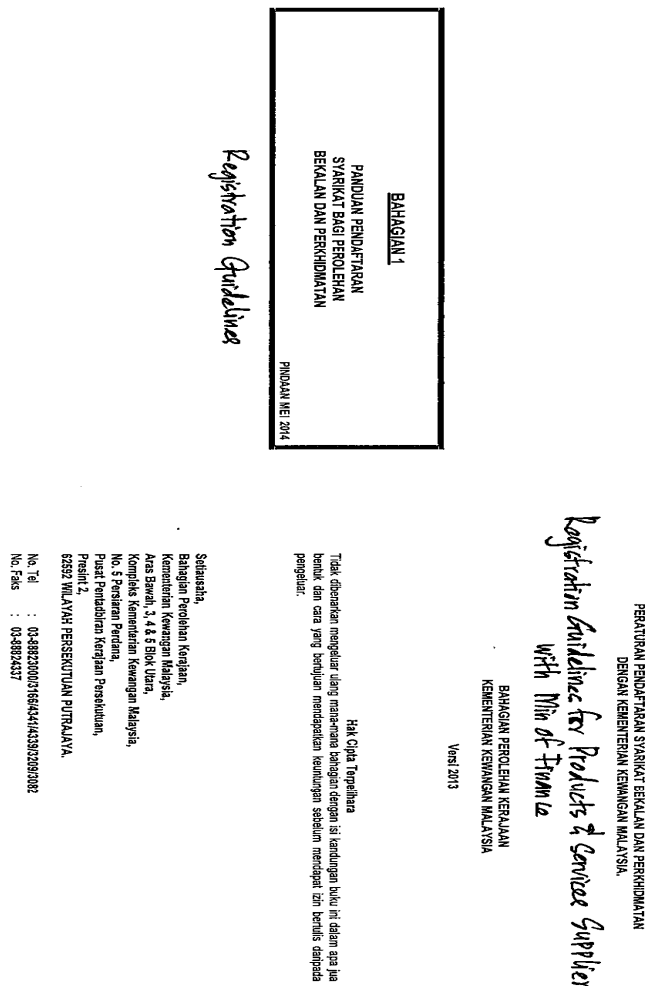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공공조달은 재무부(www.treasury.gov.my)의 「금융조달법」, 「정부계약법」을 비롯하여 관련 재무부 지침과 재무부가 고시·공지한 내용 등을 통해 규정화되고 있다.
- 입찰정보는 재무부 사이트인 (<http://myprocurement.treasury.gov.my>)와 MyGovernment 포털(www.malaysia.gov.my), 말레이시아 중앙 조달청 포털(www.eperolehan.com.my), 글로벌텐더스(GlobalTenders, www.globatenders.com/malaysia-defense-tenders.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술 제원이 확정되면 입찰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입찰(완전 공개 입찰 또는 부미푸트라 기업에 한정된 공개 입찰)의 경우, 입찰이 진행되면 입찰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직접(비공개) 입찰 또는 지명 입찰의 경우 입찰 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찰 문서는 말레이시아 중앙 조달청 공식 포털 사이트나 현지 언론매체에 고시된다.

12)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 ❖ 계약 여부가 결정되면 가계약서가 선정기업으로 발행되며, 이후 승인서가 발행되어 추가 협상을 진행해 비로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 ❖ 700만 링깃(약 2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서명에 앞서 절충 교역 협약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형 조달 사업 계약은 항상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다음은 재무부에서 고시한 입찰 신청 절차 샘플이다.

[그림 2-3] 말레이시아 입찰 신청 절차 샘플



제 2 절 산업협력 프로그램¹³⁾¹⁴⁾

1. 도입 배경 및 관련 법령

- 말레이시아는 1987년 정부조달에 대한 구상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역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초로 절충교역을 도입하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산업협력 프로그램(ICP,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으로 지칭하고 있다.
- 2010년 발표한 국가경제부흥정책(New Economic Policy) 기초 하에, ICP를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경제력 제고 프로그램(EEP, Economic Enhancement Program), ② 대응무역(Counter Trade), ③ 절충교역(Offset)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 ICP의 운영은 2014년 12월에 개정된 “절충교역 지침(Policy and Guideline on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s in Government Procurement)”을 따르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가경제 부흥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절충교역 추진을 목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 ICP 정책 관련 규정과 내용은 (<http://tda.my/icp/icp-policy-guidelines/>)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이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여, 자국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부품생산/수출, 세계 공급망(GVC) 참여, 공동개발, 해외직접투자(FDI) 등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경제부흥정책(Vision 2020)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 국가전략산업 분야 등을 사전에 선별하여, 이를 ICP 제안요청서(ICP Requirement Document) 작성 시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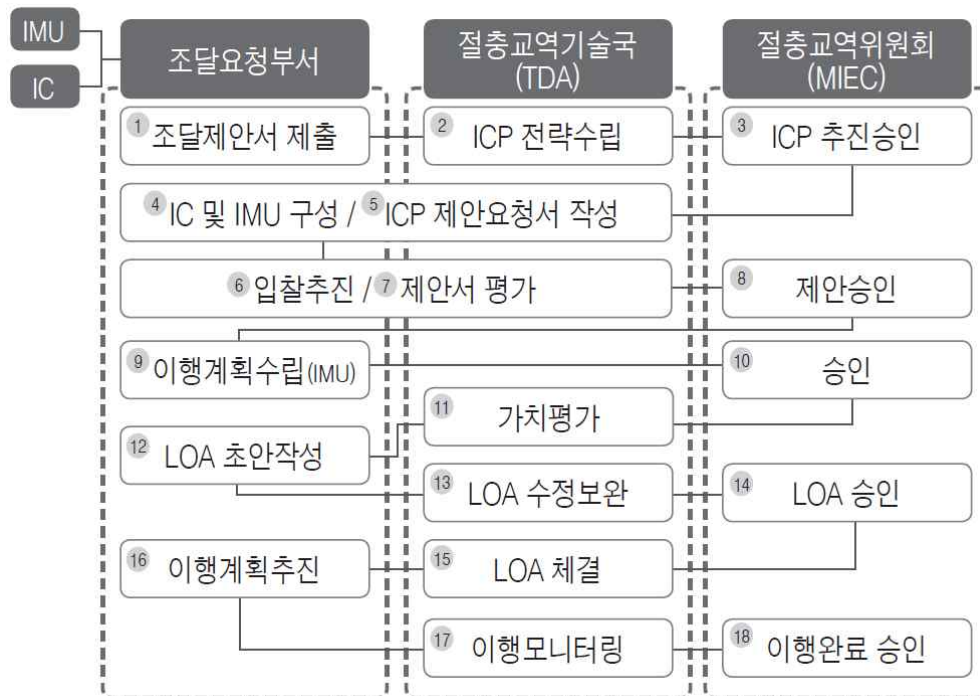
13)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장원준·김미정, 2016.

14) “POLICY AND GUIDELINES ON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 (ICP) IN GOVERNMENT PROCUREMENT SECOND EDITION”, Malaysian Government, 2016

2. 담당부처 및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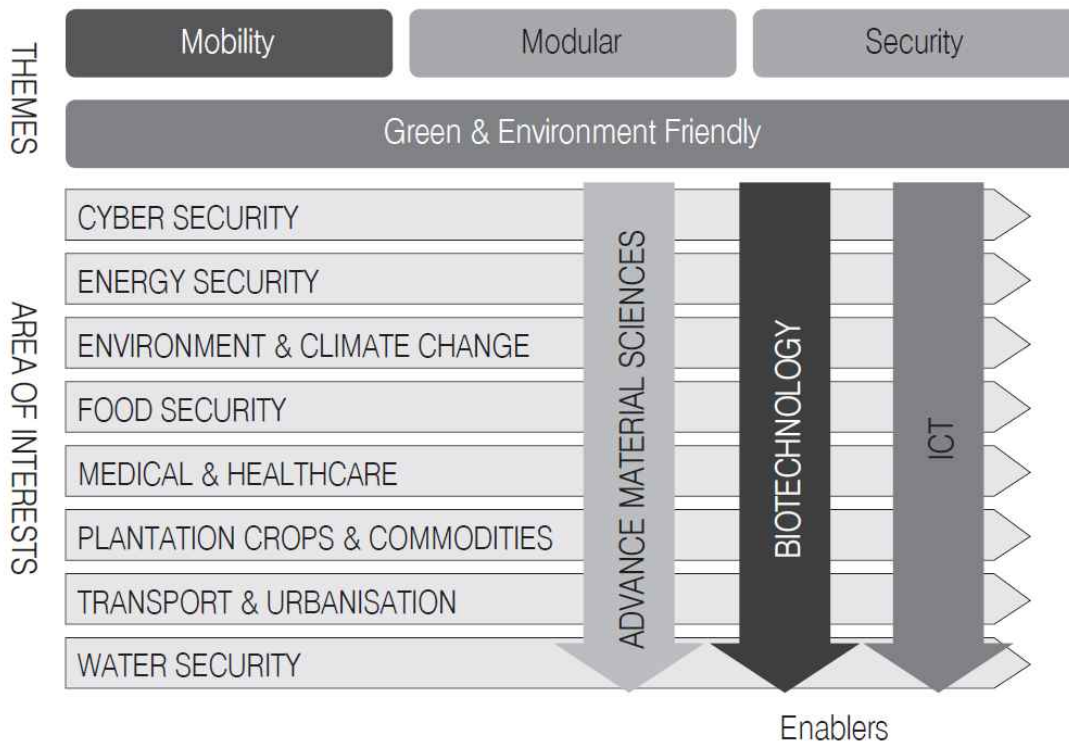
- ICP는 재무부 산하의 TDA에서 전담한다. TDA는 말레이시아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ICP 제안 요청서 작성, 가치승수, 이행 관리 등의 전 분야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TDA는 IMU(ICP Management Unit)와의 월간회의를 통해 해외기업들의 ICP 이행 과정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하게 이행을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 투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절충교역에 대한 의사결정은 말레이시아 ICP 최고위원회(MIEC, Malaysian ICP Executive Committee)에서 담당하며 절충교역 제도, 정책 등을 총괄한다. MIEC 의장은 재무부 장관(부의장 재정부차관)이며, 내무부, 국방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최소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 MIEC와 TDA와 같은 상설기구 외에, 절충교역실무위원회(IC, ICP Committee)와 사업관리국(IMU, ICP Management Unit)이 사업별로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 ICP는 아래와 같이 조달요청 부서, 절충교역 기술국 및 절충교역 위원회가 상호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4]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주요 기관 및 추진절차 현황



* 출처 : “Policy and Guideline on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s in Government Procurement”, 2015.

[그림 2-5] 말레이시아의 국가전략산업 절충교역 우선순위



* 출처 : “3rd Edition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 Policy: A New Beginning”, TDA, 2015.

3.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는 계약 금액의 100%를 ICP로 요구한다. 이는 2014년 법령개정을 통해 5,000만 링깃(약 142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조달 계약 시 적용된다.
- 대응무역(Counter Trade)와 절충교역(Offset) 두 가지 형태에 대한 군수 및 민수분야 절충교역이 모두 인정된다.
- 대응무역은 말레이시아 제품을 구매하는 ①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Program과 절충교역(ICP)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②재판매(Buy Back)로 구분된다.
- 절충교역은 교육훈련, 현지생산, 기술이전, 직접투자 등의 직접 절충교역과 노하우 제공, 연구 개발/사업화, 현지부품 개발/생산, 신(新)시장 진출 등의 간접 절충교역으로 구분된다. 현재 직접 절충교역(군수) 77%, 간접 절충교역(민수) 23%이고, 향후 절충교역 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ICP는 방위산업 이외에도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현재 'Vision 2020'에 포함된 첨단소재, 바이오 기술, ICT 분야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ICP를 장려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보안, 에너지, 환경, 의료, 수송, 수자원 등에도 높은 절충교역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 ICP는 사전 가치인정과 가치축적이 가능하다. 해외기업이 말레이시아 기업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한 가치(pre-crediting)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이를 최종 절충교역 가치로 축적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사전 가치 인정분을 가치 축적하였을 경우 5년 동안 유효하고 연차별로 감소한다. 단 특수한 경우, 가치축적 유효기간은 MIEC 또는 해당 절충교역 전담기관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① 1~2차년도 : 축적된 가치와 100% 동일한 규모의 가치 인정
 - ② 3차년도 : 가치규모가 1~2차년도 가치 혹은 현재 가치의 50%로 감소
 - ③ 4차년도 : 가치규모가 3차년도 가치 혹은 현재 가치의 30%로 감소
 - ④ 5차년도 : 가치규모가 4차년도 가치 혹은 현재 가치의 20%로 감소
 - ⑤ 6차년도 이후 : 가치효력의 상실
- ICP 가치승수는 지침에 따라 분야별로 1~5배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술,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추가 가치승수를 부여하여 최대 7.5배까지 인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 등 민수분야 절충교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승수가 부여되며, 신규시장 진입을 포함하는 마케팅 지원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참여할 경우 최대 4배 이상의 높은 가치승수가 부여된다. 다음

표는 각각의 경우에 부여되는 ICP 가치승수이다.

[표 2-1]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가치승수

selected ICP multipliers			
내용	분류	직접(군수)	간접(민수)
투자	자본투자	5×	5×
	은행담보	4×	5×
	프로젝트 파이낸싱	3×	5×
연구개발 및 상업화	기술이전, 합작투자법인 설립	4×	5×
	장비 및 워크숍	4×	4×
	지적재산 개발 및 공유	4×	4×
인적자원개발	기술교육 훈련	4×	4×
	노하우 제공	2×	2×

* 출처 : GlobalData

- ❏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5%가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은행 보증(P-bond)으로 계약금액의 5%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규정에 따라 추가의무도 별도로 부과된다. ICP 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 미이행분의 10%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 ❏ 말레이시아는 2014년 규정 개정을 통해 ‘Pre-Offset(Pre-ICP Credit Banking)’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CP 가치 확보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해외기업이 사전 승인(pre-approval)을 요청하면 TDA는 해외기업의 제안서를 MIEC에 보고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일반 Offset 방식과 Pre-Offset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4. 시행 사례

- TDA는 2017년 Airbus社 A400M 군용수송기 4대 획득을 예로 들며 군 장비 획득 시 현지 기업의 참여 확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TDA의 한 관계자는 A400M 획득에서 ICP의 내용으로 현지기업을 참여시키고 Airbus社의 GVC 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A400M 획득에서 시행되는 ICP에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에 설계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 말레이시아의 CTRM社는 A400M의 종합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다시 유럽 내 Airbus社에 수출하고 있다. CTRM社는 A400M 내 엔진 덮개(engine cowlings), 수직꼬리 날개면(vertical tail plane), 수평꼬리 날개면(horizontal tail plane), 날개 가장자리 뒷전(wing edge trailing edges), 적재 문(main loading doors), 나셀 연장 페어링(nacelle extension fairings), 연료 펌프 페어링(fuel pump fairings), 착륙장치 덮개문(landing gear door)을 생산하고 있다.
- 이 외에, Contravest社 역시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으로서 A400M 화물 관리 시스템, 항체 배선 및 포장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 국영 기업인 2012년 Denel社는 말레이시아 육군에 납품될 Deftech社 AV8 8×8 무장 전차에 장착될 터렛 176대를 계약했다. 2019년 6월 현재 자금 부족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이 획득에서의 ICP는 직·간접 절충교역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 절충교역은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Denel社가 Deftech社에 터렛 몸체와 방탄판을 제조하는 공장 설립 및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Denel社는 터렛 시스템의 대포, 조준기, 미사일 등 대부분의 부속품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했다.
- 해당 계약의 간접 절충교역 내용은 매우 복잡해, Denel社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담 매니저를 고용하기까지 했다. Denel社의 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의 간접 절충교역 의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사를 정부 기관과의 관계가 깊은 국영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2002년 말레이시아는 10억 달러(약 1조 1,588억원) 규모의 프랑스의 스콜피온 잠수함을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의 1/3 이상을 대응무역(counter-trade) 방식으로 요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파리 간 취항 노선 증대를 요구하여 주 3회 운항에서 주 6회 운항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팜유 2억 3,000만 유로(약 3천억원), 기타 9,000만 유로(약 1,173억원)를 대응구매 하였다.

- ▶ 또한 말레이시아는 2003년 러시아로부터 SU-30 전투기 18대를 도입하며 ICP를 실시하였다. 이에는 2억 7,000만 달러(약 3,120억원) 규모의 대응구매 이외에도 우주기술 이전, 우주인 육성, 러시아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총 9억 달러(약 1조 428억원)의 가치를 획득하였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3장

방위산업 시장

제 3 장

방위산업 시장

제1절 국방 예산 현황 및 전망

제2절 주요 조달 사업

제3절 방산 수출·입 시장 역학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국방 예산 현황 및 전망

1. 국방 예산 현황¹⁵⁾

- 말레이시아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방예산이 아래와 같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방산시장 역시 정체기라고 볼 수 있다.

[표 3-1] 말레이시아의 연도별 국방예산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방예산	43.0	36.1	36.6	35.9	37.0	39.0	40.6	4.22

* 출처 :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 국가 예산의 누적 적자로 인해 2011년~2015년에 계획되었던 제10차 조달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으며, 2016년~2020년의 제11차 조달계획도 마찬가지로 미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방산시장 전망이 마냥 어둡다고 할 수는 없다. 말레이시아는 투자 확대, 국내 수요 및 수출 증가 등으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연평균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Jane’s Market Forecast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말레이시아의 국방비가 35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획득규모는 8억 6,700만 달러에서 9억 8,8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태국과의 국경 갈등 등 다양한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방산물자의 수요가 예측되는 지점이다.

15)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2. 국방 예산 전망¹⁶⁾

- 말레이시아는 국방비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GDP대비 1~1.5%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나 2018년 GDP의 1%를 하회하는 0.98%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국방비와 GDP대비 국방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2] 말레이시아 거시경제 지표 및 국방비 지출 현황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18년 불변가)	억 달러	306.2	324.2	339.0	354.0	369.6	386.5	405.2	424.9
GDP 상승률	%	4.2	5.9	5.6	4.4	4.4	4.6	4.8	4.8
물가 상승률	%	2.1	3.8	1.1	2	2	2.4	2.8	2.7
국방비 (19년 불변가)	억 달러	4.30	3.61	3.66	3.59	3.70	3.90	4.06	4.22
GDP대비 국방비	%	1.41	1.11	1.08	1.01	1	1.01	1	0.99

* 출처 :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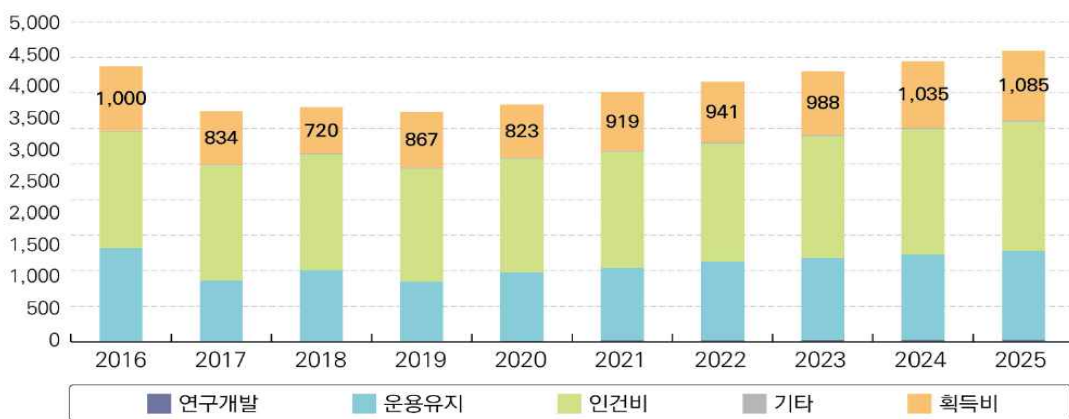
16)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표 3-3] 말레이시아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및 전망(2019년 불변가, 100만 USD)

구분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규모	4,304	3,607	3,664	3,592	3,706	3,903	4,062	4,224	4,382	4,548
	증가율(%)		-16.18	1.57	-1.95	3.16	5.32	4.08	3.99	3.74	3.78
항목별	연구개발	8	6	7	6	22	24	26	28	31	34
	운용유지	1,460	953	1,114	931	1,061	1,132	1,230	1,282	1,333	1,387
	인건비	1,822	1,805	1,810	1,774	1,784	1,813	1,850	1,909	1,966	2,025
	기타	14	9	12	13	16	16	16	16	17	18
	소계	1,000	834	720	867	823	919	941	988	1,035	1,085
	획득비	자상군	320	275	204	238	237	263	276	290	304
		해군	343	256	316	304	286	285	275	290	304
		공군	189	113	61	90	134	204	220	244	256
		전군	148	190	139	236	165	166	169	177	184
군별	자상군	1,722	1,590	1,551	1,524	1,556	1,592	1,649	1,707	1,762	1,819
	해군	963	688	793	737	760	806	845	883	920	960
	공군	873	558	655	602	649	763	816	853	890	928
	전군	745	772	664	729	741	742	751	781	811	841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그림 3-1] 말레이시아 국방예산 현황 및 향후 전망(2019년 불변가, 100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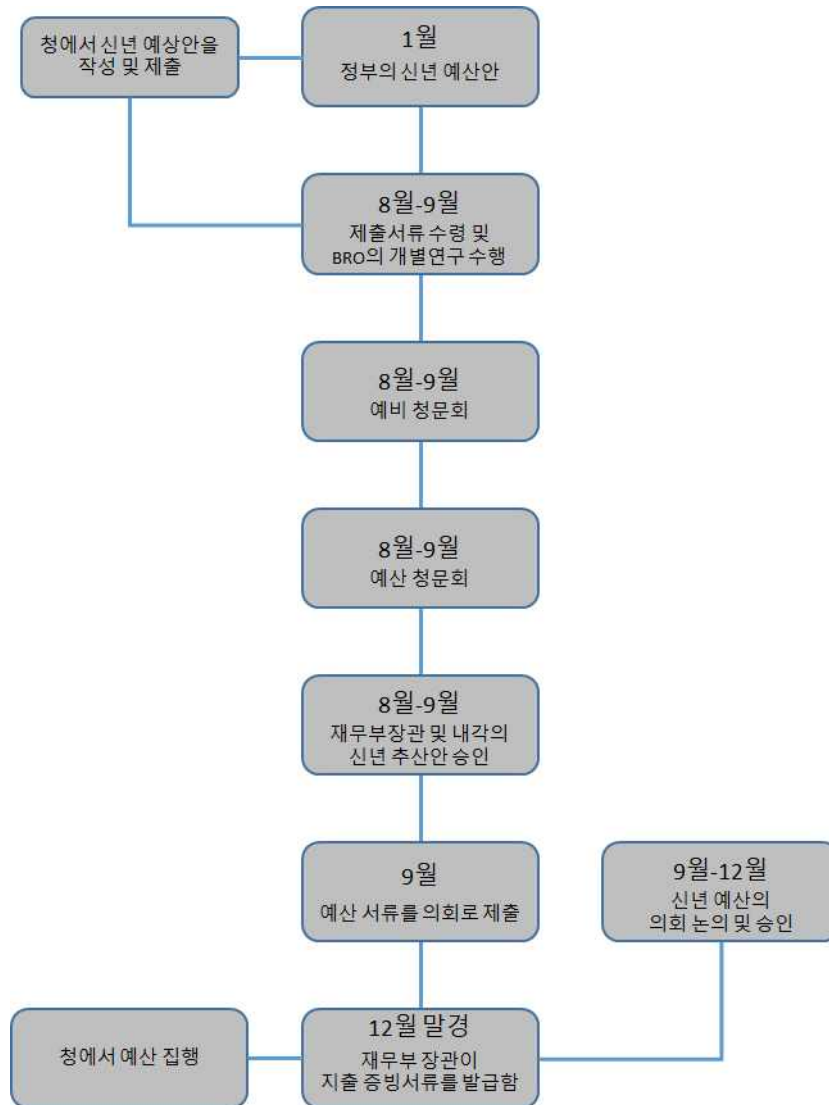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3. 예산편성 절차¹⁷⁾

말레이시아의 예산안은 하원이 단독으로 발의 및 처리한다. 예산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 말레이시아의 예산 편성 절차



17)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 ❖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은 'Vision 2020'의 최종 경제개발 청사진으로서 주요 사업의 예산 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 ❖ 현 정부가 작성한 제11차 말레이시아 수정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8~2020년 중 경제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밟아갈 수 있도록 사회계층·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향후 경제정책은 점차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 둘째로, 정부 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반영하여 평균 경제성장률, 2020년 소득수준 달성 목표 등을 하향 조정하였다. 경제성장률은 2018~2020년 중 민간부문 주도 연 4.5~5.5%로, 2020년 소득수준은 일인당 GNI 47,720링깃(11,695달러)으로 하였다.
- ❖ 셋째로, 2020년까지 고소득 경제(high income economy, 세계은행 기준(2017) 1인당 GNI 12,056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 달성 시점을 2024년 이후로 조정했다. 정부 재정은 조세제도 변경(GST → SST)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누락된 정부 부채 반영 등으로 당초 2020년 균형재정 달성에서 재정적자 규모 GDP의 3.0% 이내 유지로 수정했다. 2017년 공식 정부 부채(잔액)는 GDP 대비 50.8%이나 정부 보증 등 부실화된 우발부채 반영 시 실질 정부 부채는 GDP의 80.3%이다.

제 2 절 주요 조달 사업

1. 진행 중인 조달사업¹⁸⁾

가. 육군

- 2011년 말레이시아 Deftech社は 12종의 파생형으로 구성된 8×8 사양의 차량 257대를 설계, 개발, 제작, 지원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차량 개발은 터키 FNSS社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Deftech社와 FNSS社가 합동하여 진행했고, FNSS社の 기술이전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되었다. 초도 물량은 2014년 12월에 인도되었으나, 이후 인도는 예산 문제로 인해 계속 지연되었다. 사업 규모는 7억 7,000만 달러이며 인도 시기는 2020년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에는 병력 수송, 지휘, 구난, 구급 등 4종의 파생형 6×6 장갑차 소요가 있다. PT Pindad Rimau社 6×6 Panser 차량이 2012년에 선정되었지만,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제한적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4년 11월에 재개되었다. 말레이시아 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향후 몇 년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는 3,000만 달러이며 인도 시기는 2021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자주포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제한적인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8대의 궤도형 자주포 획득사업이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획득사업은 2018년 국방예산에 편성되었다. 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입찰 참가자는 한화 K9이다. K9은 2004년 말레이시아에서 시험 운용 및 시연 기간을 가졌다. K9의 경쟁자는 NORINCO社の 155mm PLZ45 또는 새로 개발된 155mm PLZ52일 가능성이 있다. 사업 규모는 1억 1,500만 달러이다.
- 태국 Chaiseri社は 2015년 말레이시아 육군의 노후된 Condor 4×4 APC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4×4 First Win APC의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계약은 20대의 차량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차량들은 말레이시아에서 AV4로 불릴 예정이다. 초기 6대의 AV4는 Chaiseri社가 태국에서 제작한 후 2016년 1분기에 말레이시아에 인도했다. 나머지 14대는 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한 후 면허생산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DRB-Hicom Defence Technologies, Deftech社에서 제작되었다. 사업 규모는 1억 8,400만 달러이다.

18)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나. 해군

- 말레이시아 해군은 내구 수명이 다한 고속 공격정 14여 척으로 구성된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초 말레이시아 해군은 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요청했고 2014년 말 한국의 대우 조선해양을 해당 사업을 위한 함정 6척의 제작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6년 말레이시아 해군사령관 Kamarulzaman 대장은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업 규모는 24억 달러이며 인도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7년 3월 말레이시아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4척의 연안 임무함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사업은 총 18척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척은 China Shipbuilding&Offshore International Company社에서 건조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Boustead Naval Shipyard社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사업을 위한 합작 벤처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이다.
- 2011년 프랑스 DCNS社는 Boustead社에서 NGVP 6척에 대한 설계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인도는 2018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후 6개월마다 인도될 예정이다. Boustead/Rheinmetall社의 합작 벤처기업인 Contraves Advanced Devices社를 통해 체계 계약이 수주되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과거에 20척 이상의 NGVP에 대한 소요를 밝혔으나, 예산 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 규모는 28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 말레이시아 해군은 병력 및 장비의 해상 수송 또는 재난 구호물자 수송, 지휘 및 통제하기 위한 해상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요를 가지고 있다. 조달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나 2016년 초 말레이시아 해군은 해당 소요에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고 밝혔다. Damen Schelde Naval Shipbuilding Enforcer/Rotterdam, DCNS Mistral, Navantia Enforcer/Galicia 설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규모는 6억 달러이며 인도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해군(Royal Malaysian Navy, RMN)은 최소 6대의 대잠전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심각한 예산 삭감으로 구매 계획은 지연되었다. 입찰에는 AgustaWestland AW101과 Super Lynx 또는 그 후속기, AW159 Wildcat, Sikorsky MH-60R, Kamov Ka-28이 참여했다. 사업 규모는 3억 2,000만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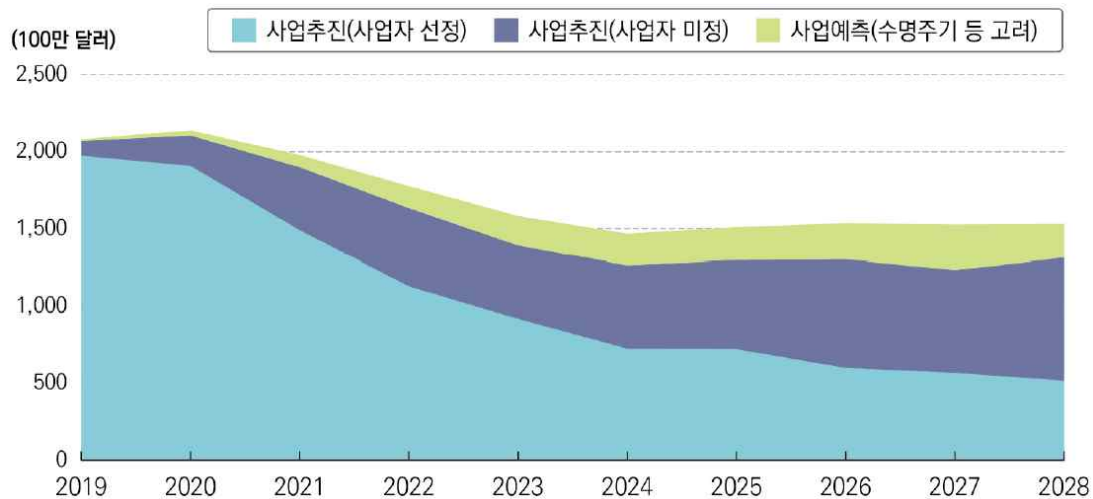
다. 공군

- 말레이시아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Beechcraft King Air 200TB 해상 초계기(MPA)는 본래 내구 수명을 2019년 말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내구 수명이 상당한 수준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MPA로 ATR 72와 Airbus C-295 및 CN-235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업 규모는 1억 6,000만 달러이다.
- 말레이시아 공군은 2017년에 퇴역하는 것으로 알려진 MiG-29N을 대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18~36대의 항공기 소요를 지니고 있었다.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중반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Boeing F/A-18E/F Super Hornet, Dassault Rafale, Eurofighter Typhoon, Saab Gripen, Sukhoi Su 30/35 등의 후보 중 하나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는 14억 달러이다.
- 말레이시아는 4~8대의 AWACS에 대한 소요가 있었지만, 예산 편성의 한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한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입찰에는 Northrop Grumman E-2C Hawkeye 2000, Embraer EMB-145 AEW, Saab 2000 AEW가 참여했다. 8대의 AWACS 소요는 2013년에 다시 진행되었지만, 2017년까지 눈에 띄는 진척은 없었다. 사업 규모는 5억 달러이다.
-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된 C-130을 대체하기 위한 Airbus A400M 중형 수송기 4대를 도입했다. A400M 초도기는 예정대로 2015년 3월에 인도되었다. 2번기는 2016년 1월에 인도되었고, 3번기는 2016년 6월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마지막인 4번기는 2017년 초에 인도되었다. 사업 규모는 6억 8,000만 달러이다.
- MD Helicopters는 2016년 2월 말레이시아 육군 항공대(Malaysian Army Aviation Corps)에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까지 MD 530G Scout 공격헬기 6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체는 동(東) 사바 안보사령부(Eastern Sabah Security Command, ESSCOM)에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무기 패키지, 첨단 통신 기능, EO/IR 센서를 장착하고 고속 공격 및 안보 임무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2. 향후 조달 예상 사업

다음은 Jane's Forecast를 활용한 2019~2028년간 주요 조달 예상 전망이다.

[그림 3-3] 말레이시아 2019~2028년 주요 획득 규모(사업 상태별, 100만 USD)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4] 말레이시아 2019~2028년 주요 획득 전망(사업 상태별, 100만 USD)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추진 (사업자 선정)	1,973.62	1,908.41	1,489.59	1,128.35	916.78	723.43	720.39	597.98	567.42	515.57
사업추진 (사업자 미정)	96.01	197.15	409.79	504.60	473.59	539.66	575.43	702.68	664.58	795.44
사업예측 (수명주기 등 고려)	10.97	31.91	78.53	141.96	190.43	203.07	212.47	234.04	293.41	219.31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 해당 기간 중 잠재적인 공급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추진(사업자 미정)’과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분야이다. 2019~2028 기간 동안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분야는 약 49억 달러,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분야는 16억 달러 규모의 지출이 예측된다.
- 다음은 소요량을 포함한 해당 기간 사업비 기준 연도별 상위 10개 획득 프로그램 전망(사업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이다.

[표 3-5] 2019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19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RAD Radar Solution	15.5	TUAS GCS	3.8
2	MRSS #1	10.6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ACMI) Training Center Support	3.0
3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 C2 Upgrade	10.5	TUAV GCS	2.6
4	Lekiu Batch 2 FF CMS	9.6	Scorpene Simulator Support	1.8
5	Air/Surface Search Radar	9.5	Mini UAV LOS Datalink	1.3
6	SATCOM Terminals	6.8	Malaysia Aerial Targets	0.6
7	BMS	6.0	Mini UAS GCS V/UHF	0.5
8	FS Kedah Hull Sonar	6.0	TUAV SATCOM Datalink	0.5
9	FS Kedah Towed Array	5.1	Mini UAS GCS LOS Datalink	0.4
10	ESM Receiver	3.2	TUAS GCS SATCOM Datalink	0.3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6] 2020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0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EASAT-2A	155.5	Air Launched Anti Ship	3.9
2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17.3	TUAS GCS	3.9
3	MRAD Radar Solution	16.1	Malaysia Jet Trainer Opportunity-Ground Based Training System	3.7
4	AEW Radar	15.1	Scorpene Simulator Support	3.5
5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 C2 Upgrade	11.0	Fighter Radar	3.2
6	MRSS #1	10.6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ACMI) Training Center Support	3.0
7	Lekiu Batch 2 FF CMS	9.9	Lightweight Torpedo	2.7
8	Air/Surface Search Radar	9.9	Malaysia Mini	2.2
9	Air to Surface Long Range	9.7	Malaysia TUAV	2.0
10	A400M ILS	9.0	Malaysia AEW Opportunity-Ground Based Training System	1.8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7] 2021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1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easat-3D	86.4	MQ-9 Reaper	10.0
2	MEASAT-2A-SO Launch vehicle	55.8	Medium Truck	8.1
3	WPB MMEA New Generation Patrol Craft #7-12	40.8	UUV(Malaysia)	4.7
4	MRL	37.0	Air Launched Anti Ship	4.0
5	MRSS #1	30.2	TUAS GCS	4.0
6	TiungSat-2-SO Launch vehicle	27.9	Malaysia Jet Trainer Opportunity-Ground Based Training System	3.8
7	AFV 6×6	27.7	Scorpene Simulator Support	3.5
8	Malaysia MPA Aircraft	26.6	Fighter Radar	3.3
9	MEASAT-2A	18.8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ACMI) Training Center Support	3.0
10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17.3	DO 4×4 APC	3.0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8] 2022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2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easat-3D	87.3	Air Defense C2	48.0
2	Measat-3D-SO Launch vehicle	55.8	Medium Truck	8.4
3	MYGOVSAT SO Launch Vehicle	55.8	Medium to short-range missile Battery C2	5.0
4	Malaysia Maritime Helicopter	54.2	UUV(Malaysia)	4.8
5	WPB MMEA New Generation Patrol Craft #7-12	41.2	DO 4x4 APC	4.6
6	MRL	39.1	TUAS GCS	4.1
7	MRSS #1	30.4	Air Launched Anti Ship	4.1
8	AFV 6x6	30.0	Malaysia Jet Trainer Opportunity-Ground Based Training System	3.9
9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28.6	Scorpene Simulator Support	3.5
10	Malaysia MPA Aircraft	27.6	Fighter Radar	3.4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9] 2023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3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58.6	Air Defense C2	49.0
2	Malaysia Maritime Helicopter	56.3	Heavy Trucks	17.1
3	MYGOVSAT SO Launch Vehicle	55.8	MQ-9 Reaper	10.4
4	MBT Opportunity	32.2	Medium Truck	8.2
5	AFV 6×6	30.9	AOR #1-2	6.7
6	Malaysia MPA Aircraft	28.7	Medium to short-range missile Battery C2	5.3
7	MRSS #1	24.1	UUV(Malaysia)	4.9
8	Helo Dipping Sonar	19.9	DO 4×4 APC	4.7
9	Combat Net Radio	17.7	Air Launched Anti Ship	4.1
10	Joint C2	16.2	RAT-31DL Mid-Life Upgrade	3.7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10] 2024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4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Africasat-1B	86.4	Air Defense C2	49.9
2	Medium to short-range missile system requirement	81.9	Heavy Trucks	17.4
3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75.7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14.4
4	MBT Opportunity	38.8	WPB MMEA Coastal #1-25	12.5
5	Malaysia MPA Aircraft	33.4	Long Range Air Surveillance Radar	7.0
6	AFV 6×6	31.7	AOR #1-2	6.8
7	MMEA Medium Transport Helicopter	23.7	DO 4×4 APC	6.3
8	Littoral Mission Ship #5	22.8	Medium to short-range missile Battery C2	5.6
9	Joint C2	19.6	UUV(Malaysia)	5.0
10	Combat Net Radio	18.3	Short Range Air to Air Missile	4.5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11] 2025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5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Africasat-1B	87.3	WPB MMEA Coastal #1-25	20.2
2	Medium to short-range missile system requirement	84.3	Wheeled Self Propelled Artillery	19.3
3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79.2	Heavy Trucks	17.7
4	Africasat-1B-SO Launch vehicle	55.8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14.4
5	MBT Opportunity	40.4	MQ-9 Reaper	10.7
6	AFV 6×6	32.5	Long Range Air Surveillance Radar	7.3
7	MMEA Medium Transport Helicopter	24.6	AOR #1-2	6.8
8	Littoral Mission Ship #5	23.1	DO 4×4 APC	6.5
9	Littoral Mission Ship #6	22.8	SSK Sonar(Malaysia)	5.7
10	Joint C2	20.7	Short Range Air to Air Missile	4.6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12] 2026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6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edium to short-range missile system requirement	86.6	WPB MMEA Coastal #1-25	20.4
2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82.8	Wheeled Self Propelled Artillery	19.8
3	SGPV/LCS #7	82.4	Heavy Trucks	18.0
4	MBT Opportunity	42.0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18.0
5	AFV 6×6	33.4	Long Range Air Surveillance Radar	7.6
6	Malaysia AEW Aircraft	33.2	AOR #1-2	6.9
7	MMEA Medium Transport Helicopter	25.6	DO 4×4 APC	6.7
8	Littoral Mission Ship #6	23.1	Malaysia Basic Trainer Aircraft	5.9
9	Joint C2	21.8	SSK Sonar(Malaysia)	5.7
10	MRSS #2	19.8	Short Range Air to Air Missile	5.7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13] 2027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7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86.3	Malaysia Medium Transport Helicopter	59.4
2	SGPV/LCS #7	83.3	WPB MMEA Coastal #1-25	20.6
3	SGPV/LCS #8	82.4	Wheeled Self Propelled Artillery	20.4
4	Malaysia AEW Aircraft	34.5	Heavy Trucks	18.4
5	AFV 6×6	34.2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18.1
6	Joint C2	22.8	DO 4×4 APC	8.4
7	Combat Net Radio	20.3	Long Range Air Surveillance Radar	7.9
8	NGPV Batch 2 #7	18.7	AOR #1-2	7.0
9	NGPV Batch 2 #8	18.5	Malaysia Basic Trainer Aircraft	6.2
10	Littoral Mission Ship #7	18.4	Short Range Air to Air Missile	5.7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14] 2028년 말레이시아 주요장비 획득 전망

2028년 사업비 기준 TOP 10 프로그램				
구분	사업추진(사업자 미정)		사업예측(수명주기 등 고려)	
	프로그램명	USD(M)	프로그램명	USD(M)
1	Malaysia Light Combat Aircraft/Fighter Lead-In Trainer(LCA/FLIT)	89.8	Malaysia Medium Transport Helicopter	61.7
2	SGPV/LCS #8	83.3	WPB MMEA Coastal #1-25	20.9
3	SGPV/LCS #9	82.4	AOR #1-2	17.1
4	SSK Future #1-2	58.4	DO 4x4 APC	8.6
5	SGPV/LCS #7	56.7	Long Range Air Surveillance Radar	8.2
6	Malaysia AEW Aircraft	35.8	Malaysia Basic Trainer Aircraft	6.5
7	AFV 6x6	35.1	Malaysia Maritime UAV	4.9
8	Joint C2	23.8	Targeting Pod	4.7
9	Combat Net Radio	21.0	Malaysia Multi Role Combat Aircraft(MRCA) Opportunity-Simulator Training Services	4.2
10	NGPV Batch 2 #7	18.9	Maritime UAS GCS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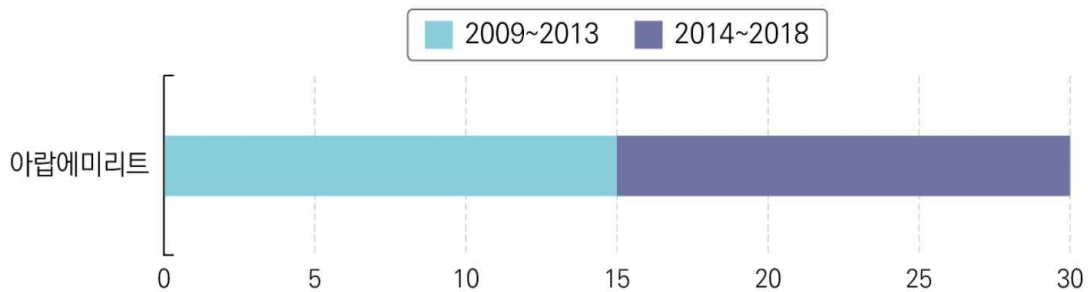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제 3 절 방산 수출·입 시장 역학

1. 수출시장의 역동성¹⁹⁾²⁰⁾

- ❏ 과거 말레이시아의 방산 수출은 매우 미진한 상태였다.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고 저개발된 상태이며, R&D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현지 방산기업들의 활동은 유지보수 분야에 그쳤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은 자국 군의 휴대용 병기, 포, 탄약 수요를 간신히 충족하는 정도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은 부족하다.
- ❏ 과거 10년간 말레이시아가 수출한 주요무기 실적으로는 2012년 UAE에 수출한 LCT-80m 상륙함 2대가 유일하다.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 기술력이 낮은 제품(탄약, UAV, 소형 함정, 훈련장비,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들을 위주로 수출한 실적이 있을 뿐이다.

[그림 3-4] 말레이시아 2009~2018년 국가별 무기 수출 규모(1990년 불변가, 100만 USD)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19)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20)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그림 3-5] 말레이시아 2009~2018년 장비별 무기 수출 비중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그림 3-6] 말레이시아 2009~2018년 무기 수출 현황(1990년 불변가, 100만 USD)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0	0	0	0	15	15	0	0	0	0	30
장비별	합정										30
국가별	아랍에미리트										30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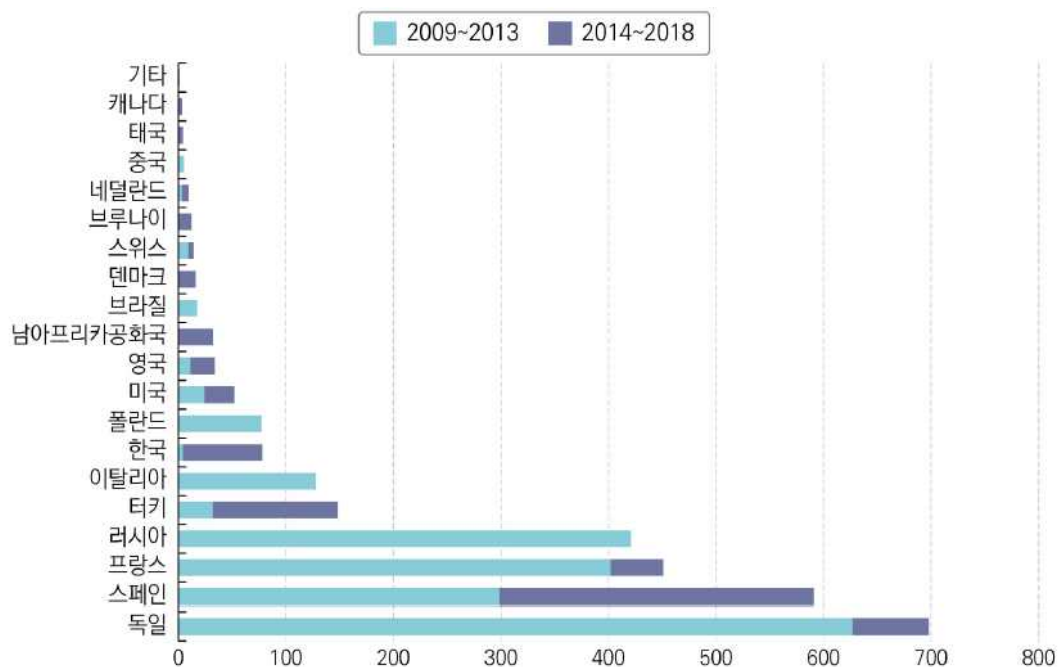
- 이같이 미진한 자국 방위산업의 부흥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외 OEM 기업들과의 합작 기업 설립, 정보 및 기술이전 장려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 덕분에 말레이시아 방산기업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국외 방산기업으로부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방산기업들의 홍보를 위하여 DSA, LIMA 같은 방산전시회를 자국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철충교역을 시행해왔으나,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에 방위산업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자국 내 R&D 사업을 육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근래 들어 철충교역 관련 규정들을 대폭 수정하고 방산기술단지를 조성하여 더 많은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 내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내 방산강국이자 MRO 허브로 거듭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방산 시장의 사업 환경, 동남아 내 급격한 국방예산 증가와 결부되어 말레이시아 방산수출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전차, 통신장비, 무인기 등의 품목들은 말레이시아 자국을 넘어 향후 동남아시아 전체로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2. 수입시장의 역동성²¹⁾²²⁾

- 말레이시아의 2009~2018년간 무기 수입 규모는 약 28억 달러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스페인도 최근에 수입 규모가 많이 늘어나면서 독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기체계 분야별 수입 규모는 함정이 46.3%, 항공이 27.8%이며 두 분야가 74.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기] 말레이시아 2009~2018년 국가별 무기 수입 규모(1990년 불변가, 100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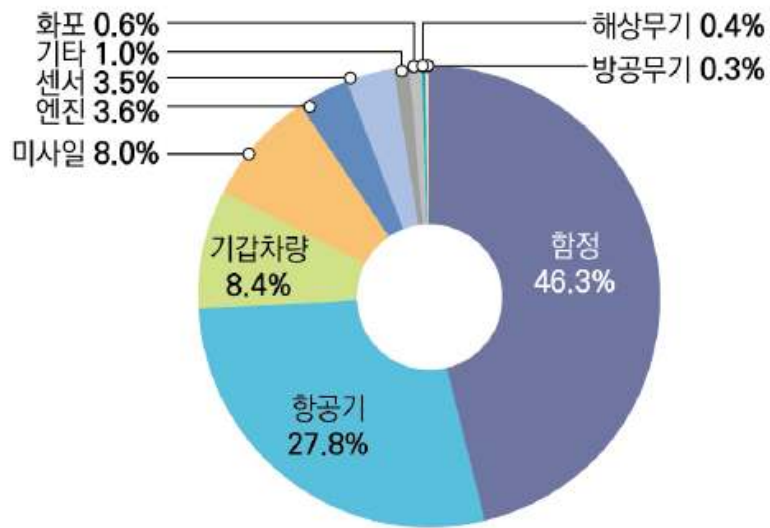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21)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22)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그림 3-8] 말레이시아 2009~2018년 장비별 무기 수입 비중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표 3-15] 말레이시아 2009~2018년 무기 수입 현황(1990년 불변가, 100만 USD)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1,514	423	5	47	72	72	104	267	192	95	2,791
함정	908	310							37	37	1,292
항공기	375			15	38	38	73	165	73		777
기갑차량	62	51				14	14	26	39	28	234
미사일	136	8	5	32	12		4	21	2	2	222
장비별 엔진	15	12				1	13	31	21	8	101
센서	12	18			22	19		12	8	8	99
기타								3	12	12	27
화포		18								0	18
해상무기	6	6									12
방공무기								9			9
독일	311	310			6	7	13	28	18	5	698
스페인	299						73	146	73		591
프랑스	302	1	3	45	51	38		11		0	451
러시아	407			2	12						421
터키		32				14	14	24	36	28	148
이탈리아	113	15									128
한국	4								37	37	78
폴란드	58	19									77
미국	10	12	2		0	10	4	10	4		52
국영가 영국	3	8						23			34
별 남아프리카공화국								4	14	14	32
브라질		17									17
덴마크									8	8	16
스위스		9						5			14
브루나이								12			12
네덜란드					3	3				3	9
중국	5										5
태국								2	2		4
캐나다								3			3
기타									1		1

* 출처 :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 ❖ 말레이시아의 방산기업은 기술 및 제조능력 부족으로 인해 군 장비 획득 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방위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방산기업들 또한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산역량의 제고는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렵다. 말레이시아 현지 방산기업들의 노력 자체가 국외 방산기업들의 말레이시아 내 기술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 그러나 유지보수(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및 부품생산 분야에서 말레이시아는 타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조금씩 감소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내 MRO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축에 속하며,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을 통해 방위산업 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남아 MRO 허브를 꿈꾸고 있다.
-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속된 경기 위축으로 인해 군 현대화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이는 낮은 국방예산으로 인한 조달비용 감소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2019년 국방예산은 34억 달러(약 3조 9,35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싱가포르 100억 달러, 인도네시아 82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낮은 국방예산은 방위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자금 부족은 말레이시아 획득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말레이시아는 자금의 여력이 된다면 서방국가들의 장비를 선호하는데, 과거 Boeing社의 Hornet 전투기, Airbus社의 A400M 등을 구매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 그러나 최근 들어 군 장비 수입대상국 중 서방국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군 장비 대부분을 유럽 국가들, 특히 군사 협력 관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수입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 말레이시아는 군 장비들을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에서도 수입하기도 한다. 이는 가격이 저렴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방산기업들과 정부가 기술이전을 비롯한 산업협력에 더욱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 ❖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년 간 재정위기로 인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방산물자를 구매하려 하며, 여기에 더해 산업협력과 절충교역을 요구한다. 이것은 방산물자를 납품하려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우선 방침은 말레이시아와 전통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던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 말레이시아는 2010년대부터 중국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장비 도입비율을 늘렸다. 이들이 서방국가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7년 말레이시아는 주요 사업이었던 연안임무함 4대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했다. 이 계약의 주요인은 가격인데, 중국의 연안임무함은 서방국가의 유사 기종의 1/3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 장비들은 서방국가들보다는 저렴한 축에 속하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을 쫓아갈 수 없다. 중국의 장비는 그 자체의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재정적으로도 대폭 지원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가격 인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방산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4 장

방위산업 역량

4

제 장

방위산업 역량

제 1 절 방산시장 수입 및 경쟁 현황

제 2 절 방산기업 진출 및 협력 현황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방산시장 수입 및 경쟁 현황

1. 방산시장 수입 현황

- 말레이시아 군 장비 수입은 '13년부터 '17년 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군 장비 총 수입액은 70억 4천만 달러로, 2013년 7억 2천만 달러에서 2016년 26억 8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7년 들어서는 수입 증가가 부진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 개혁, 기타 조달 계약 체결 때문이다. 한 예로, 말레이시아는 태국 Chaiseri社의 AV-4 20대를 계약했고, 그 중 6대는 태국에서 제조되어 2016년 말레이시아로 인도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16대는 말레이시아 내 조달 투자 안정화를 목표로 말레이시아의 DEFTECH社와 Chaiseri社가 합작하여 생산했다.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조달한 MiG-29 기종의 거의 절반이 이륙 불가 상태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투기 18대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Rafale jet와 Eurofighter Typhoon이 두 후보 기종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공중 경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전투기 구매를 유보하였다.
- 하지만, 말레이시아 방위시장은 군 현대화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 또한, 해군 함정, 다목적 항공기, 병력수송장갑차(Armored Personal Carriers), 보병전투장갑차(Infantry Fighting Vehicles) 등 연기된 획득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 말레이시아는 군 장비 대부분을 스페인, 프랑스, 터키, 독일에서 수입한다. 2013~17년 사이 말레이시아의 기간 내 군 장비 중 36.1%(TIV 기준)를 스페인에서 수입했으며 프랑스, 터키, 독일로부터는 각각 32%, 20.6%, 5.2%를 수입했다. 이외의 주요 공급국으로는 한국, 미국, 영국 등이 있다.
- 말레이시아는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반란과 국제 테러조직, 무기 밀거래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안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방공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는 2013~17년 말레이시아 군 장비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조달한 MiG-29를 대체할 전투기 18대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 또한, 말레이시아 육군의 AV-8 Gempita 8×8 차륜형 장갑차 257대가 동기간 전차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획득한 장비로는 엔진, 센서, 함정, 미사일 등이 있다.
-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은 투자금의 최소 30%를 부미푸트라(Bumiputra, 말레이계 원주민)에 할당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방산장비 획득은 부미부트라로 등록된 기업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국 내 달러를 통해서만 방산장비와 부품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내 인사가 아닌 국내 브로커들에 의해 절충교역이 수행될 수밖에 없다. 2018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경제정책(NEP)과 신경제모델(NEM)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제 모델(NEM, New Economic Model)은 Najib Razak 전 총리가 2010년 선포한 정책으로,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8년의 두 배인 1만 5,000달러까지 올려 선진 공업국으로 도약하려는 정책이다. 또한, 이 정책으로 부미푸트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을 줄이고 중국계, 인도계 등의 타 인종을 보다 공정하게 대우하고자 한다.

- ❏ 국외 방산기업들은 절충교역과 관련한 2가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첫 번째로, 국외 방산기업들은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의 직접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할 때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방위산업 역량은 많이 미흡한 편이기에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할 때에는 현지 회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두 번째로, TDA와 재무부가 요구하는 간접 절충교역 의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말레이시아는 간접 절충교역으로 방위산업 이외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요구한다. 국외 방산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조사하고 사업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요구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기술을 이전할 현지 파트너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 ❏ 획득과정 중의 과도한 부정부패는 외국 투자자들의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진출을 저지시키고 있다. 몇몇 외국 투자자들은 낙찰을 위해 뇌물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외 OEM 방산기업들은 시장 진출을 꺼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군 획득 관련 부패는 에이전트 혹은 중개인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군 획득과 관련하여 에이전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획득 과정에서 에이전트들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군 획득의 불투명성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정부 방위 반(反)부패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 지수에서 말레이시아는 D등급(방위 및 안보 부문에서 높은 위험 존재)을 기록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정밀성, 예산 투명성,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 예로, 프랑스 DCN社의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과 관련하여, DCN社는 말레이시아 내 Perimekar社에 커미션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Perimekar社는 2001년 설립된 회사로 돈세탁을 목적으로 생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관련 인사 중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프랑스에서

재수사 중이다.

- 말레이시아는 MACC(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와 같이 군 인사와 조직을 감독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등 군사조직 및 방위산업 내 부정부패를 철폐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관련 법령, 불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취약한 고발자 보호시스템, 부족한 반부패 교육 등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부패 척결이 어렵다. 군 획득에서 중요한 이슈는 국방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이다. 국방부는 군 획득 과정에서 표면상 최후의 결정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최고권자(대통령, 총리 등)가 결정을 좌우하는 등 국방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 때문에 군 획득은 국내 산업 역량의 제고 또는 외교적 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 다른 원인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회의 행정부 감독 능력이 약하고 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 방산시장 경쟁현황 및 구도²³⁾

- 국가항공우주방위산업(National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ies, NADI)社は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부문의 핵심 기관으로, 항공 및 군수품 부문을 관장하는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다. 자회사 중 하나인 AIROD社は MRO를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주요 계약처이다. AIROD社は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그리고 항공 전자 4개 부문의 MRO를 담당하고 있다. NADI社の 다른 자회사로는 항공우주기술시스템(Aerospace Technology Systems Corp, ATSC)社가 있다. ATSC社は 말레이시아의 MiG-29 부대를 운영하고, 항공기 유지보수를 관장하는 SME Aerospace社, 소형무기 및 탄약을 제조하는 SME Ordnance(SMEO)社 등을 운영하고 있다. SMEO社は 말레이시아 내 유일하게 탄약을 허가 생산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수출하고 있다.
- DRB-Hicom의 하위기업인 Deftech社は 말레이시아 방위산업의 또다른 주요 기업이다. Deftech社は 군용 차량 제조 및 관련 장비와 더불어 관련 MRO를 제공한다. 현재 주요 납품처는 말레이시아 군이지만 최근 사업권역 확대를 모색 중이다.
- CTRM社は 2013년 DRB-하이컴에 귀속된 국영 항공우주 연구개발 기관으로, Airbus社 A440M Atlas 항공기 및 다양한 무인기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CTRM社は Airbus, Boeing 등 세계적인 항공기 생산업체들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총 56.8억(약 1조 6천억원) 링깃에 달하는 주문 건을 확보하였다. 2017년 DRB-하이컴은 세 곳의 CTRM社 유관기업(CTRM Systems Integration, CTRM Aviation, and Unmanned Systems Technology)을 추가로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말레이시아에는 해군과 계약을 맺은 여러 선박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BNS社가 있다. BNS社は 상선과 더불어 해군 선박의 건조, 수리와 더불어 전자부품 및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한 MRO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군사 부문에서 활동 중인 다른 선박 건설업체로는 NGV Tech社가 있다. Kamarulzaman Ahmad Badaruddin 해군참모총장은 LIMA 2017 엑스포에서 향후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부문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재 한정된 예산 내) 해군 현대화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기업의 선박건설 능력이 '핵심'이라고 언론에 언급하였다.
- Destini Berhad社は 방위산업과 민간 부문 모두에 걸친 엔지니어링 그룹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Destini Berhad社は 항공, 해상, 자동차 부문에 다양한 군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23) "Malaysia Defence & Security Report", Fitch Solutions, 2019.

2017년에는 헬리콥터 공급업체인 Halaman Optima社를 인수해 말레이시아 군에 헬리콥터를 공급하고 있다.

- ❖ 방위산업 내 전자 및 항공제어 부문에서는, Zetro Aerospace社가 공군, 육군, 경찰에 주요 제품을 납품하며 국내 주요 공급자로 활약하고 있다. Zetro Aerospace社는 레이더 시스템 유지보수, 정비, 디자인, 제조와 더불어 센서의 업그레이드와 항공제어 시스템 관련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 ❖ 말레이시아 방산시장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rbus社는 하위기업 Sepang Aircraft Engineering社와의 합작으로 항공기 유지보수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Airbus Helicopter社 또한 현지 유지보수(M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NSS社는 Deftech社와 협업하여 말레이시아 육군의 장갑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Sikorsky社는 2012년 주 말레이시아 사무소의 개소 계획을 발표하며 AIROD社와 자사 항공기의 MRO 및 지원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Bell Helicopters社는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산업적 합작사업 기회를 찾고자 2014년 Deftech社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2018년 4월, BAE Systems社는 말레이시아 공군에 기존 Eurofighter Typhoon의 홍보와 더불어 지상, 사이버, 해상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쿠알라룸푸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4월 유럽의 Leonardo社는 말레이시아 국내 MRO 시설 확보를 위해 협업할 말레이시아 기업을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 ❖ 영국의 전자부문 방위산업체 L-3 TRL社은 2013년 말레이시아 사무소를 개설하고, 계약 건들의 관리 및 현지 파트너십의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대테러 및 대반란 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전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경, 군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항공 전자 기기, 무인기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Safran社은 말레이시아 사무소 개설을 통해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 권역 내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 2 절 방산기업 진출 및 협력 현황

1. 국외방산기업의 진입전략 및 목표²⁴⁾

-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40여개 방산기업이 15,000~20,000명의 인력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피복 및 유지보수 영역에 집중하여 활동 중이며 기술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국외 기업들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 이 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방산기반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외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을 선호한다. BNS社は 프랑스 DCNS社와 독일 Atlas Elektronik社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잠수함 건조 및 전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2016년 11월 스위스 Ruag社は 항공 MRO 설비를 현지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Ruag社は 2011년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인 Prima Elite Technology社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에 계열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항공 MRO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 Airbus社は MRO 기업인 Sepang Aircraft Engineering社の 지분을 기존에 40%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 100%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2017년 7월 터키 Aselsan社は 현지 생산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 계열사를 설립하였다.

24)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표 4-1] 국외방산기업의 진입전략 및 목표

회사명	진출연도	진입전략 및 목표
Chaiseri	2015	진입 전략: AV-4 장갑차 생산과 관련하여 DEFTECH社와 사업 제휴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 전략 목표: DEFTECH社의 AV-4 장갑차의 생산 허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
FNSS	2011	진입 전략: Pars 장갑차 생산과 관련하여 DEFTECH社와 사업연계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 전략 목표: DEFTECH社의 Pars 장갑차의 생산허가를 위한 상호 협약에 서명
PT. Pindad (Persero)	2010	진입 전략: 현지 방산기업인 SMEO社와 MoU 체결을 통해 시장 진입. 방산 장비의 공동 생산과 더불어 아이디어 및 지식 교류를 포함한 방산부문 상호 협업에 동의 전략 목표: 이웃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과 양국 방위산업 기여
Denel	2010	진입 전략: 회전식 포탑, 총기탑재 방호구조물의 합동 개발을 위해 DEFTECH社와 사업 연계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 전략 목표: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으로서 위 사업 제휴를 통한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내 영향력 증대 및 입지 구축. 이러한 제휴를 통해 DEFTECH社 또한 생산 능력을 개선할 것.
SME Ordnance Sdn Bhd	1969	진입 전략: SME Ordnance社는 1969년에 말레이시아 정부, 독일의 Dynamit Nobel社, 스위스의 Oerlikon Machine Tools社, 그리고 현지 2개 기업(Syarikat Permodalan Kebangsaan社와 Syarikat Jaya Raya Sdn Bhd.)의 합작사업으로써 설립됨 전략 목표: 2009년 SMEO社는 M4의 차후 연구개발을 위해 RM3,640만 링깃(약 104 억원)을 투자할 것을 발표. M4 14,000기가 말레이시아 육군에 공급될 예정.

* 출처 : GlobalData

2. 분야별 방산기업 및 국외 기업과의 협력²⁵⁾²⁶⁾

[표 4-2]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항공)

항공		
기업명	협력현황	생산제품
Advanced Air Traffic Systems	이탈리아 Selex ES	항공관제레이더시스템
Aero Precision Resource	N/A	항공교육훈련센터, 컨설팅
Aerospace Technology Systems Corporation	러시아 United Aircraft Corporation, Rosoboronexport와 철충교역 합작회사	항공기 유지보수, 부품제조
Aerotree defence & services	미국 DRS Technologies	공중 표적기, 시뮬레이션
Airod	N/A	항공기 유지보수
Astronautic Technology	N/A	인공위성 관련 조사/개발
Composite Technology Research Malaysia(CTRM)	프랑스 Airbus, 미 Boeing, 영 BAE Systems	항공기 복합재
Destini Berhad	미국 Boeing	항공기 복합재, 무인기
Integrated Training & Services Group	N/A	항공조종훈련, 시뮬레이션
Protank Technologies	미국 L3, Curtiss Wright, 영국 Cobham	항공기 엔지니어링
Satang Jaya	프랑스 Thales, 영국 Signature Industries	항공기 유지보수
SME Aerospace	영국 BAE Systems, 미국 Boeing, 일본 Kawasaki Heavy Industries	항공기 금속소재 가공
Vas Aero	N/A	항공기 시험장비
Zetro Aerospace Corporation	미국 Rockwell Collins, Raytheon, 터키 Aselsan	항전장비

* 출처 : GlobalData

25)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26)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표 4-3]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지상)

지상		
기업명	협력현황	생산제품
SME Ordnance	미국 Colt Defense, 영국 BAE Systems	소·중·대구경 탄약 및 폭탄
Vita Berapi	N/A	총기류 개발
Amalgamated Metal Builders	영국 BAE Systems	금속가공
Deftech	터키 FNSS, 대한항공	장갑차량, 무인기
Muadamzam Oto	N/A	군용차량 변속기
Pesaka Astama	영국 BAE Systems	군용차량
Sapura	프랑스 Thales	정보통신, 시뮬레이션
AVP	한국 Hanwha Defense	6×6 장갑차량

* 출처 : GlobalData

[표 4-4]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해상)

해상		
기업명	협력현황	생산제품
Atlas Defence Technology	독일 Atlas Elektronik사와 Boustead사의 합작투자로 설립	함정 전자시스템 유지보수
Boustead Naval Shipyard	프랑스 DCNS, 터키 Yonca Onuk	함정 건조 및 전투체계
D'Aquarian Services	영국 Kelvin Hughes, 독일 Deutz	해상지원서비스
Geliga Slipway	핀란드 Marine Alutech	함정건조
Labuan Shipyard and Engineering	영국 BAE Systems	함정 유지보수
Malaysia Marine and Heavy Engineering	N/A	해상건설(석유, 가스 관련)
MSET Shipbuilding Corporation	N/A	함정건조 및 재제작
MTU Services Malaysia	독일 MTU사와 현지기업 합작투자로 설립	MTU 엔진 정비
Nautica Nova Shipbuilding & Engineering	N/A	함정건조 및 수리
Semenanjung Selatan	프랑스 Zodiac	고속단정 등
Sigma Integrated Systems	미국 L-3, 프랑스 MBDA	함정통신장비 등
Sapura	한국 Hanwha System	해상감시장비

* 출처 : GlobalData

[표 4-5] 현지기업과 국외기업의 협력사항(지휘통신체계)

지휘통신		
기업명	협력현황	생산제품
AMP Corporation	프랑스 Thales, 미 General Dynamics	레이더시스템 유지보수
Caidmark	N/A	엔지니어링 서비스
Comintel	이탈리아 Selex, 프랑스 Sagem, 미국 General Dynamics	IT시스템/통신시스템 통합
Comlenia	이탈리아 Selex사와 Comintel사의 합작투자로 설립	전자장비 유지보수
Ikramatic System	스위스 Pilatus, 프랑스 Airbus	시뮬레이션
System Consultancy	프랑스 Airbus	전자시스템 개발
Wannastation	미국 Hewlett Packard	통신보안시스템

* 출처 : GlobalData

3. 국가 간 협력현황²⁷⁾²⁸⁾

가. 해외 방산협력

- 말레이시아는 매우 다양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군 장비를 공급받는다. 이는 장비의 유지, 운송, 상호운용에 있어 차질을 빚을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쟁의 원리에서 보면 장비를 보다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동안 러시아는 말레이시아 군 장비의 주요 공급국 역할을 해왔으며, 말레이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전투기와 관련 장비, 부품, 시스템 등을 구입하였다. 그 밖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말레이시아 방산기업들과 오랜 기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말레이시아는 프랑스로부터 잠수함과 헬리콥터, 독일로부터 디젤 엔진, 레이더, 지상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 지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방산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는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의 국방 예산 및 획득 자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존재는 훨씬 강력해질 예정이다. 중국의 장비는 기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축에 속하므로 말레이시아로서는 획득에 관해서는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마하티르 총리는 탈(脫)중국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 방산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나. 한국과의 방산협력

- 대우조선해양은 말레이시아 조선소와의 합작으로 해군 훈련함 2척의 건조 및 전력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여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 현재 한-말레이시아 간 방산협력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말레이시아 방위산업국이 그 주체이다. 이는 과거 방산군수 실무위원회, 상호 군수지원, 국방과학기술 교류 등 산발적으로 추진된 양국 간 군수지원 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27)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28)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5장

시장 진출 전략

제 5 장

시장진출 전략

제 1 절 방산시장 환경 및 SWOT 분석

제 2 절 진출전략

제 3 절 수출 유망분야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방산시장 환경 및 SWOT 분석

1. 방산시장 환경 분석

- 말레이시아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방예산 및 획득 비용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동남아 권역의 특성 상 해양 국가로서 다양한 영유권 분쟁에 직면해 있고, 특히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국으로 말레이시아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심각한 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군 장비 도입 시 비용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중국은 방산 수출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최대 라이벌이 될 것이다.
- 말레이시아는 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방 조달 영역에서도 Bumiputra(말레이시아 원주민)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입찰에 참여할 시에는 부미푸트라 기업과의 협업과 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방 조달 시에 산업협력 프로그램(ICP,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 하에 절충교역을 높은 비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 또한 수출시장 진출 시에 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말레이시아의 방산 수출은 이전까지 매우 미진한 상태에 불과했지만, 최근 산업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동남아 권역 내 MRO 허브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에 DSA, LIMA 등 자국 내 방산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자국의 방산기업 육성 및 홍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말레이시아는 부족한 장비 제조능력과 방산기술로 방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방산시장 SWOT 분석

[표 5-1]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정비, 수리 및 분해(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부문이 발전되어 있음 ● 경량무기, 전차 부문 역량을 갖춘 ● 서비스 부문 강세와 낮은 실업률로 안정적이고 일정한 경제성장이 예상됨 ● 매년 예산 공개	● 2014년도 말레이시아 부패척도 설문조사 결과, 정당이 국내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나타남 ● 일부 획득사업 시 입찰 없이 진행 ● 국내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때때로 불가능 ● 군사장비 수요 충족에 있어 해외 무기체계 수입의존도가 높음 ● 군 장비 원자재 발굴이 어려움 ● 인건비 증가 추세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중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및 현지 반군 활동으로 인한 일정한 작전 상황 유지 ● 산업규모가 작아서 해외공급자 사이의 경쟁은 약한 편 ● 지역안보를 강화를 위해 해상 및 항공 무기 강화 움직임 ● 지정학적으로 MRO 허브 구축에 적합 ● 절충교역의 적극적 추진으로 국외 방산기업들의 진입 기회 많음 ● 범아세안 방산 협력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동시에 가능	● 최근 경제위기로 국방비 및 획득예산을 삭감했으며 국방 현대화 일정이 미뤄짐 ● 절충교역 및 기술이전 강력 요구 ●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타국 기업보다 선호하는 경향 ●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길어 신속한 공급자 전환 불가 ● 유가 하락추세(말레이시아는 산유국) ● 육군 규모 감소 움직임으로 자국 우위부문인 경량무기, 전차에 대한 수요 감소 ●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해상 대치 위험성

[표 5-2]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SO, ST, WO, WT 전략

구 분	주요내용
SO 전략 (Strength- Opportunity)	* 강점을 활용한 기회 확대 전략 ● 한-말레이시아 간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수평적 방산 협력 확대 ●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에 관한 공통 소요 발굴 ● 근접국과의 해상 대치 상황으로 예상되는 해상 무기체계 및 물자, 관련 부품 수요 예측 및 개발 ● 매년 국방비 및 획득 예산을 파악해 수입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수출가능성 파악 및 수출 물량 사전 계획
ST 전략 (Strength-Threat)	* 강점을 활용한 위협 최소화 전략 ● 무기체계 수입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신속한 공급자 전환이 불가하므로, 현지 방산 기관 및 기업과의 꾸준한 접촉 및 협력관계 구축 ●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제한된 획득 예산 내에서 미국 및 유럽 장비에 대한 경쟁력 확보 ● 절충교역 이행 시에 현지 MRO 기반 확충 내용을 제시
WO 전략 (Weakness- Opportunity)	* 기회 활용을 위한 약점 보완 전략 ●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말레이시아 방산 관련 국가기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입찰 없이 진행되는 획득사업에 우리 기업을 후보군으로 고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현지 기업과의 사전 접촉 및 교류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획득사업 시 고지 선점 ● 현지 방산전시회 적극 참여로 현지에 자사와 자사 품목 홍보에 주력
WT 전략 (Weakness- Threat)	* 위협 회피 및 약점 최소화 전략 ● 절충교역 및 기술이전 시에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소화 및 활용이 가능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 ● 절차상 에이전트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신용정보 분석을 통한 우수에이전트 리스트를 확보하여 이들과의 협력 관계 모색

제 2 절 진출전략

1. 중개기업 및 에이전트 확보

- 말레이시아는 자국 방산역량 제고를 위해 자국 방산기업과 국외 방산기업들 간 파트너십 형성을 장려한다. 이 과정에서 중개기업 및 에이전트의 개입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방산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들은 중개의 대가로 중개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방산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 다음은 D4B에 등록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내 에이전트 내역이다.

[표 5-3] D4B 등록 말레이시아 방산에이전트 내역

회사정보	
회사명	CAROL TRADING ENT.
홈페이지	
관련품목	USED AUTO PARTS(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23 -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보조용품 25 - 상용차,군용차및승용차와부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N.G. CAROLINE
주소	52, JALAN FLORA 5, TMN FLORA, BATU PAHAT, JOHOR 84000,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6-317 2306
팩스번호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CELCURE CHEMICALS (M) SDN. BHD.
홈페이지	http://www.celcure.com
관련품목	CHEMICALS(WANTS TO PURCHASE)
카테고리	12 - 화학제품 46 - 국방및치안장비와용품 80 - 경영관련법
연락정보	
담당자명	GEORGE MAH
주소	LOT 28, KEPONG I/A, LORON KUANG, BULAN, 52100 KUALA LUMPUR,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3-6274 2288
팩스번호	(60) 3-6276 7560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EGO INTERACTIVE SDN. BHD.
홈페이지	
관련품목	NON-WORKING MONITORS(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30 - 건축물및토목건자재 31 - 제조부품 46 - 국방및치안장비와용품 52 - 가정용기기,용품및가전제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ZACK ONG
주소	4, LORONG P.J.S. 10/7C, SUBANG, INDAH, 46000 PETALING JAYA, SEL,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12-278 9369
팩스번호	(60) 3-3279 1623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FORMINCO SDN. BHD.
홈페이지	
관련품목	MILITARY UNDERWEAR(WANTS TO PURCHASE)
카테고리	46 - 국방및치안장비와용품 53 - 의류,가방및개인위생용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RICHARD NG
주소	16A, JALAN NIRWANA SATU, TAMAN, NIRWANA, AMPANG, 68000 SELANGOR,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3-9287 7588
팩스번호	(60) 3-9281 1788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LANCASRICH OVERSEAS TRADING
홈페이지	
관련품목	AUTOMOBILE LICENSE PLATE HOLDER(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25 - 상용차,군용차및승용차와부품 30 - 건축물및토목건자재 52 - 가정용기기,용품및가전제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EDDY CHIN
주소	76, 3/F, JALAN YAM TUAN, SEREMBAN 70000, MALAYSIA
국가	(60) 12-682 2383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LEONG HIN AUTO CO.
홈페이지	
관련품목	DIESEL VEHICLE SPARE PARTS(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25 - 상용차,군용차및승용차와부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NG CHUN CHOONG
주소	308, JALAN IPOH, 51200 KUALA LUMPUR,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3-4042 2161
팩스번호	(60) 3-4042 0292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LIKA TRADING
홈페이지	
관련품목	LIFE JACKETS(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46 - 국방및치안장비와용품 53 - 의류,가방및개인위생용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PHILIP LOH
주소	10E-01-07-002, BLK1, S.KINABLU, S.10, WANGSA, 53300 KUALA LUMPUR,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13-206 3988
팩스번호	(60) 13-206 3988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MULTI TRADING
홈페이지	
관련품목	LEVI JEANS(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46 - 국방및치안장비와용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SUZANA WONG
주소	39, JLN.MERPATI, TMN.TRANSKRAN, NIBONG TEBAL, PENANG 14300,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5-716 9361
팩스번호	(60) 5-716 9361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P.C. SPARK TECHNOLOGY SDN. BHD.
홈페이지	
관련품목	USED MONITORS(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25 - 상용차,군용차및승용차와부품 41 - 실험,측정,관찰및시험장비
연락정보	
담당자명	RICHARD LEE
주소	SG-16-0, SUBANG SQ, JL SS15/4G, SUBANG JAYA, SELANGOR 47500,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3-5633 1550
팩스번호	(60) 3-5633 7745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PROGRESSIVE ASIA TECH. MAL.
홈페이지	http://www.progressiveasia.com
관련품목	SCRAP COMPUTER COMPONENTS(NEEDED BY IMPORTER), SCRAP SEMICONDUCTORS (NEEDED BY IMPORTER)
카테고리	25 - 상용차,군용차및승용차와부품 32 - 전자부품및소모품
연락정보	
담당자명	MIRCLE YAP
주소	2-4-15, JL MEDANG TANDUK, BUKIT, BANDAR RAYA, KUALA LUMPUR,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3-253 0861
팩스번호	(60) 3-253 0937
이메일	

회사정보	
회사명	STATE QUARTERMASTER SUPPLIES
홈페이지	
관련품목	USED SHIPS/VESSELS(WANTS TO IMPORT)
카테고리	24 -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보조용품및소모품 25 - 상용차,군용차및승용차와부품 78 - 운수
연락정보	
담당자명	PRICHARD TIEW
주소	498, LOT 3994, JL. STAMPIN BARAT, KUCHING SARAWAK 93722, MALAYSIA
국가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60) 19-848 7196
팩스번호	(60) 82-334 866
이메일	

2.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구축

- 말레이시아 방산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이다. 말레이시아는 직접 수입보다는 현지에서의 합작 생산을 장려하는데, 이는 ICP 이행으로 국내 방산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다.
- 해외 기업이 입찰이나 절충교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이다. BAE Systems社の 경우 2012년 쿠알라룸푸르에 동남아 지역 본부를 설립했으며,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Loka Wireless社와 협력하여 내비게이션 기술을 말레이시아 군과 민간시장에 도입했다. 이 밖에 Safran社, Boeing社, Dassault社, Saab社, Thales社, DSME社 등의 국외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합작투자 법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 중 하나는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비용을 많이 감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방위시장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 태국, 독일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 말레이시아는 방위산업의 활성을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유인하고자 한다. 이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내 기업들에게 국외 OEM 기업들과의 합작을 장려한다.
- 이는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많은 현지 기업들이 부품 제조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며, 후에는 말레이시아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한 예로, 독일에 기반을 둔 전자장비 제조기업인 Rohde and Schwarz社를 들 수 있다. Rohde and Schwarz社は 2004년에 부품 제조를 통해 시장에 진출했다가, 2010년에는 IGTec Sdn Bhd社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했다.
- 결과적으로, 현지 기업(특히 부미푸트라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진출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다. 말레이시아 내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국외 기업들은 이를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 다음 표는 2017년 말레이시아 방위산업국(MIDES)에 소속된 기업 중 별 4개 이상(최대 5개)을 부여받은 우수기업 목록이다.

[표 5-4] 2017년 MIDES 소속 우수기업

순	기업명	분야 (주요사업품목)	주소	등급 (STAR)
1	컨트레이브스 어드밴스드 디바이스 유한회사 (CONTRAVES ADVANCED DEVICES SDN BHD) TEL: 03-6205 2190	해상 (PCB 케이블 조립 및 테스트 전자제품 제조 및 조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잘란 스리 하르타마스 1, 플라자 다마스 3, 블록 A, A-02-15, 우) 550480(A-02-15, Block A, Plaza Damas 3, Jalan Seri Hartamas 1, 550480 KUALA LUMPUR MALAYSIA)	5
2	암닥 (M) 유한회사(AMDAC (M) SDN BHD) TEL: 03-7947 1978	자동차 (특수목적용 차량 개발)	슬랑오르주 프탈링자야, 섹션 8, 잘란 8/1, 8 애비뉴, No. A-3-8, 우) 46050(No. A-3-8, 8 Avenue, Jalan 8/1, Seksyen 8, 46050 Petaling Jaya Selangor)	5
3	다쿠아리안 서비스 (M) 유한회사(D'AQUARIAN SERVICES (M) SDN BHD) TEL: 05-688 2393	해상 (디젤엔진 유지보수 PAE 통신 라디오 KELVIN HUGHES 레이더 공급)	페락주 다룰 리주안, 세리 만중, 카와산 인더스트리 세리 만중, PT 3709(PT 3709, KAWASAN INDUSTRI SERI MANJUNG, SERI MANJUNG, PERAK DARUL RIDZUAN)	5
4	DRB-하이컴 디펜스 테크놀로지 유한회사(DRB-HICOM DEFENCE TECHNOLOGIES SDN BHD) TEL: 03-5522 8888	자동차 (군용/국토안보용 장갑차 및 수송차의 설계, 개발, 생산 및 공급)	슬랑오르주 샤 알람, 섹션 15, 잘란 팡아핏 15/19, 롯 26, 우) 40200(Lot 26, Jalan Pengapit 15/19, Seksyen 15, 40200 SHAH ALAM Selangor)	5
5	듀로맥 (M) 유한회사(DUROMAC (M) SDN BHD) TEL: 03-8070 2826	자동차 (산업용 청소차량 및 기타 특수청소장비 제조)	슬랑오르주 푸충, 반다르 킨라라, 잘란 BK 1/15, No.9, 우) 47180(No.9, Jalan BK 1/15, Bandar Kinrara, 47180 Puchong Selangor)	5
6	겐팅 에티카 유한회사(GENTING ETIKA SDN BHD) TEL: 03-2260 3333	해상 (해상함 ESM 장비 유지보수 Oto Melara 포 정비 IBIS V 시스템 유지보수)	쿠알라룸푸르 센트랄, 잘란 스테센 센트랄, 플라자 센트랄, 블록 A 20층, No 2A-20-1, 우) 50470(No 2A-20-1, 20th Floor Block A,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50470 Kuala Lumpur Sentral)	5
7	그레이드 원 마린 십야드 유한회사(GRADE ONE MARINE SHIPYARD SDN BHD) TEL: 05-688 2911	해상 (함정 건조 및 수리 해상 공사 자재/설비 공급)	페락주, 세리 만중 카와산 페르인더스트리안, 잘란 KP/2, 롯 10133(1층, 우) 32040(Lot 10133 (1st Floor), Jalan KP/2 Kawasan Perindustrian Seri Manjung, 32040 Perak)	5
8	케이 마린 유한회사(KAY MARINE SDN BHD) TEL: 09-662 6444	해상 (함정 건조 및 수리)	쿠알라트렝가누, 부킷 툼부 사서함 92, 롯 2650 & 2651, 우) 20100(Lot 2650 & 2651, Bukit Tumbuh P.O.Box 92, 20100 Kuala Terengganu)	5
9	콤바라 수치 유한회사(KEMBARA SUCI SDN BHD) TEL: 03-8912 1339	자동차 (차량 유지보수/MRO)	슬랑오르주 카장, SG 므랍 루아르, 잘란 아이르 히탐, 롯 551-G, 우) 43000(LOT 551-G, JALAN AIR HITAM, SG MERAB LUAR, 43000, KAJANG SELANGOR)	5

순	기업명	분야 (주요사업품목)	주소	등급 (STAR)
10	라부안 십야드 & 엔지니어링 유한회사(LABUAN SHIPYARD AND ENGINEERING SDN BHD) TEL: 087-451 888	해상 (해상함점 건조 및 유지보수 정유사업)	라부안 연방직할구, 사서함 81210, 잘란 란차 란차, KM 9, 우) 87031(KM 9, JALAN RANCA RANCA, P.O BOX 81210, 87031 WILAYAH PERSEKUTUAN LABUAN)	5
11	메가파두 유한회사(MEGAPADU SDN BHD) TEL: 03-5548 4848	해상 (폴리에틸렌 송유관/송수관)	슬랑오르주, 샤 알람 섹션 23, 잘란 부르사 23/4, No 12, 우) 40300(No 12, Jalan Bursa 23/4, Seksyen 23 Shah Alam, 40300 Selangor)	5
12	MTU 서비스 말레이시아 SND 공개유한회사(MTU SERVICES MALAYSIA SDN BHD) TEL: 03 7800 8432	자동차 (해상/발전기/수송/레일 부문 MRO)	슬랑오르주, 프탈링자야, 다타란 프리마, 잘란 PJU 1/41, 블록 C1, No. 9&11, 우) 47301(No 9 & 11, Block C1, Jalan PJU 1/41, Dataran Prima,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5
13	프레스턴 십야드 유한회사(PRESTON SHIPYARD SDN BHD) TEL: 087-452 598	해상 (항만 운영 함정 유지보수 및 수선)	라부안 연방직할구, 사서함 82164, 잘란 란차 란차, KM 9, 우) 87031(KM 9, JALAN RANCA RANCA, P.O BOX 82164, 87031 WILAYAH PERSEKUTUAN LABUAN)	5
14	프로탱크그룹 유한회사(PROTANKGROUP SDN BHD)	자동차	-	5
15	스므락 십야드 & 마리타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SEMERAK SHIPYARD & MARITIME ENGINEERING SDN BHD)	해상 (해상함정 건조)	-	5
16	시스템 컨설턴시 서비스 유한회사(SYSTEM CONSULTANCY SERVICES SDN BHD) TEL: 03-4149 1919	항공 우주 (ICT 유지보수 무인기/드론 개발사업)	왕사 마주, 푸삿 반다르, 잘란 1/27F, No.36, 우) 53300(No.36, Jalan 1/27F, 53300 Pusat Bandar, Wangsa Maju)	5
17	보스 엔지니어링 유한회사(VOSS ENGINEERING SDN BHD) TEL: 06-7978000	항공 우주 (밸브/액츄에이터 MRO)	느그리슴빌란주, nil라이 우타마, 잘란 nil람 3, 롯 3, 우) 71800(LOT 3 JALAN NILAM 3, NILAI UTAMA, 71800 NEGERI SEMBILAN)	5
18	어드밴스드 에어 트래픽 시스템스 (M) 유한회사(ADVANCED AIR TRAFFIC SYSTEMS (M) SDN BHD) TEL: 03-5569 1515	항공 우주 (공항관제 시스템/방공 시스템의 공급 및 유지보수)	슬랑오르주 샤 알람, 트마시아 인터스트리얼 파크, U1/48, 잘란 풍아차라, No.8(No.8, Jalan Pengacara, U1/48, Temasya Industrial Park, Shah Alam Selangor)	4
19	에스트로네틱 테크놀로지 (M) 유한회사(STRONAUTIC TECHNOLOGY (M) SDN BHD) TEL: 03-5569 0100	항공 (우주/정보통신기술/해상 우주/위성기술 연구기관)	샤 알람 하이컴 글렌마리 인터스트리얼 파크, 섹션 U1, 잘란 주루란창 U1/21, 롯 88, No.2(No.2, Lot 88, Jalan Jururancang U1/21, Seksyen U1, Hicom Glenmarie Industrial Park Shah Alam)	4
20	자요닉 MSC 유한회사(JAYONIK MSC SDN BHD) TEL: 03-4143 7658	자동차 (차량 주행 시뮬레이터, VR 연구개발)	왕사 마주, 푸삿 반다르 바루, 잘란 2/27F, No. 7-1(1층)(No. 7-1 (First Floor) Jalan 2/27F, Pusat Bandar Baru, Wangsa Maju)	4

순	기업명	분야 (주요사업품목)	주소	등급 (STAR)
21	AVP 엔지니어링 (M) 유한회사(AVP ENGINEERING (M) SDN BHD) TEL: 03-3122 8262	자동차 (특수차량 개조)	슬랑오르주 카와산 프루사한 틀록 팡리마 가랑, 잘란 와자 16, 롯 4(Lot 4, Jalan Waja 16, Kawasan Perusahaan Telok Panglima Garang Selangor)	4
22	CME 에다란 유한회사(CME EDARAN SDN BHD) TEL: 03-5633 1188	자동차/정보통신기술 (소방장비/특수차량 제조 및 판매)	슬랑오르주 샤 알람, 수방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얼 파크 바투 티가, 잘란 들리마, 롯 19(Lot 19, Jalan Delima 1/1, Subang Hi-Tech Industrial Park Batu Tiga, Shah Alam Selangor)	4
23	이노피크 (M) 유한회사(INNOPEAK (M) SDN BHD) TEL: 03-6141 7930	무기 (항공/방산/차량 부문 정밀기계공업)	슬랑오르주 프탈링자야, 코타 다만사라, 슬랑오르 사이언스 파크 1, 잘란 테크놀로지 3/5, 롯 20, 우) 47810(LOT 20, JALAN TEKNOLOGI 3/5, SELANGOR SCIENCE PARK 1, KOTA DAMANSARA, 47810 PETALING JAYA SELANGOR)	4
24	데라 파우치 인더스트리 유한회사(D'ERA POUCH INDUSTRIES SDN BHD) TEL: 06-799 6007	일반 품목 (인스턴트 음식 제조)	느그리슴빌란주, nil라이, 카와산 페르인더스트리안 nil라이 3, 잘란 nil라이3/15, 549, 550 & 551, 우) 71800(549, 550 & 551, JALAN NILAI 3/15, KAWASAN PERINDUSTRIAN NILAI 3, 71800 NILAI, NEGERI SEMBILAN)	4
25	자클 트레이딩 유한회사(JAKEL TRADING SDN BHD) TEL: 03-26150827	일반 품목 (섬유/가구/인테리어)	쿠알라룸푸르, 오프 잘란 문시 압둘라, 자클 스퀘어, 롯 159, 7층, 자클 몰(JAKEL MALL, LEVEL 7, LOT 159, JAKEL SQUARE, OFF JALAN MUNSHI ABDULLAH, KUALA LUMPUR)	4
26	어드밴스 디펜스 시스템스 유한회사(ADVANCES DEFENCE SYTEMS SDN BHD) TEL: 03-2385 3720	무기 (MIDES 구성원 보안/방호장비 수입)	쿠알라룸푸르, 잘란 툰 삼반탄, 므나라 셀, 7A층(LEVEL 7A, MENARA SHELL, JALAN TUN SAMBANTHAN, KUALA LUMPUR)	4
27	안스 테크니컬 & 서비스 유한회사(AANS TECHNICAL & SERVICES SDN BHD) TEL: 05-688 3211	정보통신기술 (배관/전기/장비설치)	페락주 루뫓, 데사 만중 라야, 페르시아란 베니스 수테라, No 19(NO 19 PERSIARAN VENICE SUTERA 1, DESA MANJUNG RAYA, LUMUT PERAK)	4
28	BHIC 엘라이드 디펜스 테크놀로지 유한회사(BHIC ALLIED DEFENCE TECHNOLOGY SDN BHD) TEL: 05-688 1400	해상 (지휘통제 시스템 MRO)	페락주 세리 만중, 푸삿 프르니아간 만중, 페르시아란 PM2, 롯 152 & 153(Lot 152 & 153, Persiaran PM2, Pusat Perniagaan Manjung, Seri Manjung Perak)	4
29	BHIC 보포스 아시아 유한회사(BHIC BOFORS ASIA SDN BHD) TEL: 03-2078 8663	해상 (함포 판매/MRO/훈련 등)	페락주 루뫓, 팡칼란 TLDM, 보스테드 네이벌 십야드 D/A, 우) 32100(D/A BOUESTEAD NAVAL SHIPYARD PANGKALAN TLDM, 32100, LUMUT PERAK)	4
30	빈탕 만중 유한회사(BINTANG MANJUNG SDN BHD) TEL: 05-547 3008	해상	페락주 이포, 카와산 페르인더스트리안 링안 브르참, 할라 인더스트리 브르참 2, No.6, 우) 31400(NO. 6, HALA INDUSTRI BERCHAM 2, KAWASAN PERINDUSTRIAN RINGAN BERCHAM,31400 IPOH PERAK)	4

순	기업명	분야 (주요사업품목)	주소	등급 (STAR)
31	보스테드 네이벌 shipyard 유한회사(BOUSTED NAVAL SHIPYARD SDN BHD) TEL: 05-690 7000	해상 (초계함/병력수송정 등 함정 건조 및 수리)	페락주 루뚱, 팡칼란 TLDM 루뚱, 우) 32100(PANGKALAN TLDM LUMUT 32100 LUMUT PERAK)	4
32	케이드마크 유한회사(CAIDMARK SDN BHD) TEL: 03-7729 9390	항공 우주 (항공부문 MRO 구조건전성 활동)	슬랑오르주 프탈링자야, 다만사라 우타마, 잘란 SS21/56B 53(53 Jalan SS21/56B, Damansara Utama Petaling Jaya Selangor)	4
33	컴인텔 테크 서비스 유한회사(COMINTEL TECH SERVICES SDN BHD) TEL: 03-5039 9898	정보통신기술 (해상전투시스템/ 미사일·어뢰시스템 유지보수)	슬랑오르주 샤 알람, 글렌마리 트마시아 인더스트리얼 파크 섹션 U1, 잘란 플루키스 U1/46, 37(37, Jalan Pelukis U1/46 Seksyen U1 Temasya Industrial Park Glenmarie, Shah Alam Selangor)	4
34	다마이 지투 마린 유한회사(DAMAI JITU MARINE SDN BHD) TEL: 605-688 1933	해상 (해상 커뮤니케이션/ 내비게이션 장비 유지보수)	페락주 세티아완, 반다르 baru 세리 만중, H6 파사 1C1(H6 Fasa 1C1, Bandar Baru Seri Manjung, Setiawan Perak)	4
35	다야테크 메린 유한회사(DAYATECH MERIN SDN BHD) TEL: 05-692 1841	해상 (함정설계 / 테크니컬 다이빙 자기 소프트웨어 개발)	페락주 타만 베르자야 세티아완, 톱캇 아타스 4(4 Tingkat Atas, Taman Berjaya Setiawan Perak)	4
36	FEHM 엔티티 유한회사(FEHM ENTITY SDN BHD) TEL: 03-4260 1000	정보통신기술 (전자통신장비 생산 및 설치)	쿠알라룸푸르 타만 세티아왕사, 잘란 세티아왕사 11A, No.33(No. 33 Jalan Setiawangsa 11A, Taman Setiawangsa Kuala Lumpur)	4
37	피칸테크 유한회사(FICANTECH SDN BHD) TEL: 05-688 3002	일반 (무역업)	페락주, 세리 만중, 파사 1CA, 톱캇 아타스, No.70(No.70, Tingkat Atas, Fasa 1CA, SERI MANJUNG, Perak)	4
38	겔리가 슬립웨이 유한회사(GELIGA SLIPWAY SDN BHD) TEL: 09-8593673	해상 (함정 및 함선 건조 및 유지보수)	트렝가누 크마만, 부킷 쿠앙, 잘란 타만 데사 아와나, 롯 1046, 우) 24000(LOT 1046, JALAN TAMAN DESA AWANA, BUKIT KUANG 24000 KEMAMAN TERENGGANU)	4
39	킨타 스위치기어 유한회사(KINTA SWITCHGEAR SDN BHD) TEL: 05-2911 888	정보통신기술 (배전반 생산 및 설치)	페락주 체모르, 오프 잘란 쿠알라 캉사르, IGB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얼 파크, 르부 프루사한 클르방 1, No 20(No 20, Lebuhr Perusahaan Klebang 1, IGB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Off Jalan Kuala Kangsar Chemor, Perak)	4
40	말레이시아 마린 & 헤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MALAYSIA MARINE AND HEAVY ENGINEERING SDN BHD) TEL: 03-7804 4706	해상 (석유/가스 공학, 선박 건조)	슬랑오르주, 프탈링자야, 다타란 프리마, 잘란 PJU 1/41, 블록 1, 1-6(1-6, Blok 1, Jalan PJU 1/41, Dataran Prima, Petaling Jaya Selangor)	4
41	매트릭스 파워 네트워크 유한회사(MATRIX POWER NETWORK SDN BHD) TEL: 03-8926 4941	정보통신기술 (전기전력시스템 생산 및 공급)	슬랑오르주, 반다 baru 방이, 카와산 페르인더스트리안 방이, 섹션 13, 잘란 P/1A, 롯 6(Lot. 6, Jalan P/1A Seksyen 13, Kawasan Perindustrian Bangi, Banda Baru Bangi, Selangor)	4

순	기업명	분야 (주요사업품목)	주소	등급 (STAR)
42	모터 테크놀로지 & 인더스트리 유한회사(MOTOR TEKNOLOGI & INDUSTRI SDN BHD) TEL: 03-6092 8162	자동차 (엔진 구성품 정밀기계공업 엔진 구성품 재생산)	슬랑오르주 라왕, 잘란 인더스트리 2/5, 타만 인더스트리 인테그라시 라왕, 롯 65(Lot 65, Taman Industri Integrasi Rawang, Jalan Industri 2/5 Rawang Selangor)	4
43	MSET shipbuilding 코퍼레이션 유한회사(MSET SHIPBUILDING CORPORATION SDN BHD) TEL: 09-6223 3700	해상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쿠알라트렝가누, 폴라우 캄빙, 잘란 힐리란, 사서함 36(P.O. Box 36, Jalan Hiliran, Pulau Kambing, KUALA TERENGGANU)	4
44	프나가 사마 지와 유한회사(PENAGA SAMA JIWA SDN BHD) TEL: 04-3904 834	해상 (해상 부품 및 장비)	폴라우 피낭, 버터워스, 프라이, 잘란 인드라와시, 잘란 키킵, 4(4, Jalan Kikik, Jalan Inderawasih, PRAI, BUTTERWORTH, Pulau Pinang)	4
45	쿼드라드 시스템 & 테크놀로지 유한회사(QUADRAD SYSTEM & TECHNOLOGY SDN BHD) TEL: 03-7845 3370	정보통신기술 (전기 전력공급 시스템 생산)	슬랑오르주, 반다르 baru 핑기란 수방, 섹션 15, 잘란 마타하리 A au5/Aa, No. 50 & 52(No. 50 & 52, Jalan Matahari A au5/Aa, Seksyen 15, Bandar Baru Pinggiran Subang, Selangor)	4
46	사라왁 슬립웨이 유한회사(SARAWAK SLIPWAYS SDN BHD) TEL: 085-651655	해상 (선박 건설 및 수리업)	사라왁주 미리, 사서함 238, 인더스트리얼 피아사우, 롯 806(Lot 806 Industrial Piasau, P.O Box 238, MIRI Sarawak)	4
47	웰단 마린 서비스 유한회사(WELDAN MARINE SERVICES SDN BHD) TEL: 089-616 222	해상 (선박 건설 및 수리업)	사바주 산다칸, 사서함 1232, 잘란 바투 사피, 탕종 모르타스, 우) 90713(TANGJONG MORTAS, JALAN BATU SAPI, P.O BOX 1232, 90713 SANDAKAN SABAH)	4
48	다야 O.C.I 유한회사(DAYA O.C.I SDN BHD) TEL: 03-89273866	자동차 (냉방/공기순환 시스템)	반다르 baru 방이, 섹션 13, 카와산 페르인더스트리안 방이, 잘란 P/8, NO 9 & 11(NO 9&11, JALAN P/8, KAWASAN PERINDUSTRIAN BANGI, SEKSYEN 13, BANDAR BARU BANGI)	4
49	페네르파 엔지니어링 & 마린타임 서비스 유한회사(PENERPA ENGINNERING & MARTIME SERVICES SDN BHD)	해상 (상선 건설 및 수리업)	파항주 쿠안탄, 타나 푸티, 잘란 세리 크문팅 2, 콤플렉스 르킵 쿠안탄, 우) 25100(KOMPLEKS LKIM KUANTAN, JALAN SERI KEMUNTING 2, TANAH PUTIH 25100 KUANTAN PAHANG)	4
50	마이크로 프레시전 엔지니어링 & 서비스 유한회사(MICRO PRECISION ENGINEERING & SERVICES SDN BHD)	정보통신기술 (해상 보조기계장비 제조)	-	4
51	무히바 마린 엔지니어링 유한회사(MUHIKBAH MARINE ENGINEERING SDN BHD) TEL: 03-31656666	해상 (선박 건설 및 수리업)	슬랑오르주, 클랑항, 무킴 클랑 슬랏 루뭇, 틀록 공, 롯 923(LOT 923, TELOK GONG, MUKIM KELANG SELAT LUMUT, PORT KLANG, SELANGOR)	4

순	기업명	분야 (주요사업품목)	주소	등급 (STAR)
52	O&G 워크스 유한회사(O&G WORKS SDN BHD) TEL: 03-2787 9000	해상 (해안용 기중기 제조 및 유지보수)	슬랑오르주, 풀라우 인다 인더스트리얼 파크, 잘란 송아이 찬동 13, No.2(No. 2, Jalan Sungai Chandong 13, Pulau Indah Industrial Park, Selangor)	4
53	신양 shipyard 유한회사(SHIN YANG SHIPYARD SDN BHD) TEL: 08 5422118	해상 (선박 건설 및 수리업)	사라왁주 미리, 쿠알라 바람, 잘란 쿠알라 바람, 서브 롯 153(페어런트 롯 70)(Sub Lot 153 (Parent Lot 70), Jalan Kuala Baram, Kuala Baram, Miri Sarawak)	4
54	사무드라 슬라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SAMUDERA SELATAN ENGINEERING SDN BHD) TEL: 05-688 2790	해상 (해상 전자장비 수리업)	페락주 세리 만중, 잘란 SM 6/8, 카와산 페르인더스트리안 세리 만중, 롯 37/38(Lot 37 / 38, Kawasan Perindustrian Seri Manjung, Jalan SM 6/8, Seri Manjung Perak)	4
55	아시아 슬립웨이 & 엔지니어링 유한회사(ASIA SLIPWAY & ENGINEERING SDN BHD)	해상 (조선대 제조/공급/수리)	-	4
56	DSK 리소스 유한회사(DSK RESOURCES SDN BHD) TEL: 03-7832 6666	해상 (해상 전자장비 공급 및 수리)	슬랑오르주 샤 알람, 부킷 젤룽통, 아이파크3, 잘란 리얄 U3/38 No 2, 위스마 DSK(Wisma DSK, No 2 Jalan Riyal U3/38, I-Parc3, Bukit Jelutong, Shah Alam Selangor)	4
57	테크노매트릭 유한회사(TEKNOMATRIK SDN BHD) TEL: 05-683 2949	해상 (정보기술, 일반무역)	페락주 루뮷, 타만 루뮷 페르마이, 페르시아란 루뮷 페르마이 1, No 10, 우) 32200(NO 10, PERSIARAN LUMUT PERMAI 1, TAMAN LUMUT PERMAI, 32200 LUMUT PERAK)	4

3. 기술이전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방산시장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자국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절충교역 시 기술이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말레이시아 기업 및 정부뿐만 아니라, 당장에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매자 입장인 국외 기업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 말레이시아는 방산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현지 방산기업은 해외의 기업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일어나는 현지 방산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해외 선진국들의 방산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내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기술이전을 활용해왔다.
- 2018년 4월, 말레이시아는 일본과 군 장비 기술이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말레이시아와 일본 정부의 군 장비 기술이전과 차후 관리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여기에는 군 장비의 거래에 관한 규정과 함께 양국의 기업 간 기술 이전의 절차와 정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결한 다른 기술이전 프로그램으로는 태국의 Chaiseri Defence社가 제조한 병력수송장갑차(APC) AV4 20대 계약이 있다. 20대 중 첫 6대는 2016년 1사분기 말레이시아에 인도되었으며, 나머지 14대는 절충교역에 포함된 기술이전 프로그램 하에 말레이시아의 DEFTECH社가 제조하기로 했다.
- 우리 중소기업도 장비 납품 시에 핵심기술을 제외한 부가적인 기술을 현지에 이전해주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한다면, 거래 성사 뿐 아니라 향후 기술 협력 및 노하우 전수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른 향후 협업의 여지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계약 시 장비 가격에 반영해 납품 이행 후 기업 손실이 없게끔 조치해야 한다.

4. 현지 방산 전시회 활용

- 말레이시아는 2개의 방산전시회를 각각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하나는 Langkawi International Maritime and Aerospace Exhibition (LIMA)이고 다른 하나는 Defense Services Asia (DSA)이다.

가. LIMA

- 2019년 개최된 LIMA는 당해 세계 3위의 규모로 개최되었다. LIMA 2019에는 38,421명이 방문했고, 36개국 555개 기업이 참가했다. 전시기간 중 24억 6천 링깃(약 7,000억원) 규모의 11개 협약이 체결되었다.
- 가장 큰 규모는 말레이시아의 Boustead Naval Shipyard Sdn Bhd (BNS)사가 중국 기업과 합작하여 생산하기로 한 연안임무함(LMS) 4대의 계약이다.
- 또한, NCO(Networked Centric Operations)구축을 위한 Seicom Systems사의 4억 9,600만 링깃(약 1,400억원) 규모의 군 장비와 인프라 개발 관련 계약도 체결되었다. 말레이시아 현지 회사인 ATSC사는 3억 1,700만 링깃(약 900억) 규모로 수호이 Su-30MKM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Europrop International社は A400M 엔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Airbus Military社は A400M 2억 3,800만 링깃(약 677억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Global Turbine Asia社は 1억 4,700만 링깃(약 418억원) 규모의 EC725 내 Makila 2A1 엔진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 계약을 3년 연장하였다.
- LIMA 2019에는 한화디펜스와 한화시스템이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여 함정 전투체계(CMS), 고해상도 주간·적외선 카메라 탑재 원거리 주야간 관측용 퀀텀아이(Quantum-Eye), 차량·함정 탑재형 전자광학추적(EO/IRST)장비, 휴대형 다기능 관측경(Panop-HH)을 전시했다. KAI는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여 FA-50, KT-1, 수리온을 선보였다.
- 2021년 LIMA 16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나. DSA

-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DSA에 한국관을 설치하며, 한국관 내 중소기업관을 설치한다. 중소기업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DSA 2018에는 65개국의 1,250여개의 방산기업들이 참가했으며, 한국 방산기업은 25개사가 참여하였다.
- DSA 2018에 참여한 한국 기업과 전시품목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5] DSA 2018에 참여 기업 및 전시품목

구분	기업명	주요 전시품목
운영자	방진회	-
단독부스 (4)	한화시스템	국경감시장비, 함정전투체계
	풍산	30/40mm 대공포탄, 탄약류
	대한항공	무인기
	산청	방독면
중소기업관 (15)	경창산업	방탄헬멧, 방탄조끼
	그라운드	낙뢰방호시스템
	동성전기	발전기, 송풍기
	디앤비	자동소화장치시스템
	로터스	방탄조끼, 방탄헬멧
	우경광학	야포용 조준경
	유택	표적지시기, 마일즈장비
	이오시스템	단안형 야간투시경
	지노모터스	방독면
	지슨	무선도청탐지시스템
	티비티	해안/국경감시 열상카메라
	현대제이콤	위성위치보고장치
	수옵틱스	조준경
	화인글로벌	군용보트
	화인코악	훈련용 대공표적기
공동 (2)	한화디펜스	6×6 차륜형 장갑차
	연합정밀	케이블, 커넥터, 인터콤
경남TP (4)	해암테크	방산기어류(장갑차, 탱크 등)
	태인정밀	12.7mm, 40mm 유탄 삼각다리
	태창기계	수평형 MCT 가공
	진영티비엑스	함정 터빈 블레이드
참관 (5)	LIG넥스원	-
	LS엠트론	전차 및 장갑차 궤도 홍보
	두산모트롤	-
	다산기공	총기류 홍보
	효성	방탄복 소재 홍보
방진회 및 29개사 69명		-

DSA 2018의 참가 기업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5-6] DSA 2018 참가 기업별 주요 성과

기업명	내 용
한화디펜스	6×6 차륜형장갑차 실물 전시 및 현지 성능시험 협의
한화시스템	말련 총리 등 정부주요인사 대상 국경감시시스템 홍보
대한항공	말련 Deftech사와 무인기 협력 MOU 체결
풍산	태국 VD Defense사와 5.56mm탄 납품 협의
디앤비	UAE Nimr사와 자동소화장치 공동개발 관련 협약 체결(4.19)
동성전기	말련 Kembara Suci사와 장갑차용 발전기 발주 협의
지노모터스	이집트 Telecom사 등과 방독면 납품 협의
그라운드	남아공 Alares Antennas사 등과 낙뢰방호장비 설치 협의
TBT	브루나이 Yusada사 등과 열상카메라 샘플구매 협의
지슨	말련 Noble Armada사 등과 도청탐지시스템 공급 협의
화인코웍	인니 Aerospace Ven Tures사와 대공표적기 납품 확인

DSA 2018의 BtoG 미팅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7] DSA 2018 BtoG 미팅 내역

대 상 자	상담 참가기업
말련 총리	한화시스템
말련 국방장관	한화시스템, 중소기업관
말련 국방사무차관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말련 해군소장	한화시스템
말련 육군준장	중소기업관
말련 세렘반주 왕세자	지슨
나이지리아 공군소장	TBT, 현대제이콤, 이오시스템, 대한항공
오만 공군총장	중소기업관
터키 국방부 소장	동성전기
노르웨이 해군총장	화인글로벌
캄보디아 공군부사령관	대한항공, 화인코웍
파키스탄 조병창장	풍산
필리핀 육군대령	유텍, 화인코웍

- DSA 2020는 '20. 4. 20(월)~23(목) 4일간 쿠알라룸푸르의 MITEC(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다. DSA 2020에는 DSA 2018과 마찬가지로 방진회가 한국관을 설치하며, 한국관 내 중소기업관을 설치한다. 중소기업관은 방진회의 회원사가 아니라도 중소방산기업이라면 참가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을 지원한도 3억 원 내에 100% 보조받을 수 있다.
-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8]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대상 (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통역비 4. 홍보물 제작비 5. 공동교통비 (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3억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2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 만약 중소기업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지원한도 2천만 원 내에 80%만 보조 받을 수 있으며, 통역비와 공동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관은 참여기업이 3개 미만일 때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회 개최 여부와 일정은 주최국 및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국내 전시회의 보조금은 참가 기업이 많을 경우 지원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비는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국내·외 전시회 홍보동영상 제작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전시회 참가 및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5-1] 전시회 참가 및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절차

구 분	내 용
전시회 참가 신청(기업)	희망기업은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행사참가 90일 전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별지1 or 별지2>
↓	
지원대상자 선정(청)	보조금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전시회 참가(기업)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등록 /www.gosims.go.kr)
↓	
보조금 지급 신청(기업)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참가결과 보고서 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 <별지4>
↓	
보조금 지급(청)	관련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기업)	e나라도움 정보공시(익년도 4월이내)

제 3 절 수출 유망분야

1. 국방 M&S 분야

- ❖ 국방 M&S 분야는 대기업의 지분이 크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방 분야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M&S는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아 소규모 전력운영비로만 사업화가 추진되었고, 대기업들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 ❖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M&S가 무기체계로 분류되고 사업비가 증가하자 대기업들은 뒤늦게 사업에의 참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술경쟁력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 한 예로, LIG Nex1은 합참 C4ISR 분석 모델 시뮬레이션 사업을 수주하였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적기 납품에 실패하여 해당 사업은 1년 8개월 연장되었다. 이는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높고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 인력을 평소에 유지하기 어려워 특정 사업을 발주할 시 팀을 급조하여 업무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 ❖ 하지만 현재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제도 상 신용도 등의 평가요소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인프라 부족과 경쟁력 부재에도 대기업이 시장 참여를 계속 시도하는 상황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탄 제조 대기업인 풍산이 M&S 기술이 필요한 '적외선 섬광탄' 사업을 수주하였으나, 개발에는 실패하였다.
- ❖ 이같이 대기업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국방 M&S 분야는 중소기업 중심 방산 분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 M&S 분야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이전에 대한 반발 제기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현지 국가의 군사 데이터를 받아 S/W화하는 절차상 특징으로 현지국가의 결정만으로도 사업화가 가능하고, 첫 사업을 수주한 뒤에도 장기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기타 분야²⁹⁾

다음 표는 규모 순으로 나열한 2019~2024년 말레이시아 상위 10개 방산 분야이다.

[표 5-9] 말레이시아 상위 10개 방산 분야

(단위 : 미국 달러)

부문	하위부문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019-2024 (US\$ Million)
함정 및 MRO	프리깃함	311	355	389	420	461	46	1,982
주요 거점 보호 (CIP)	시설보안	225	236	245	257	266	275	1,503
함정 및 MRO	콜베트함	175	192	212	133	149	166	1,026
장갑차	APC	134	145	151	170	182	194	976
C4ISR	공중	122	126	143	147	124	128	790
C4ISR	지상	107	117	120	133	138	126	743
해상 및 국경 방호	해상 감시 및 감지	95	98	102	105	109	115	624
해저전	전투 시스템	94	108	119	130	134	0	585
해상 및 국경 방호	국경 감시 및 감지	72	74	77	80	84	89	476
C4ISR	해상	73	85	93	82	83	31	447

* 출처 : 말레이시아 국방부 및 GlobalData

가. 프리깃함(Frigates)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프리깃함을 확보하여 해군력을 증강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또한 잇따른 IS의 위협으로 프리깃함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 프리깃함이 도입되면 국경 간 범죄, 해적, 테러 등의 문제 해결과 수색, 구조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Boustead Naval Shipyard (BNS)社は Maharaja Lela급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s)를 구축하여 말레이시아 해군에 납품하였다. 2014년 BNS社は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연안전투함 6대의 플랫폼을 납품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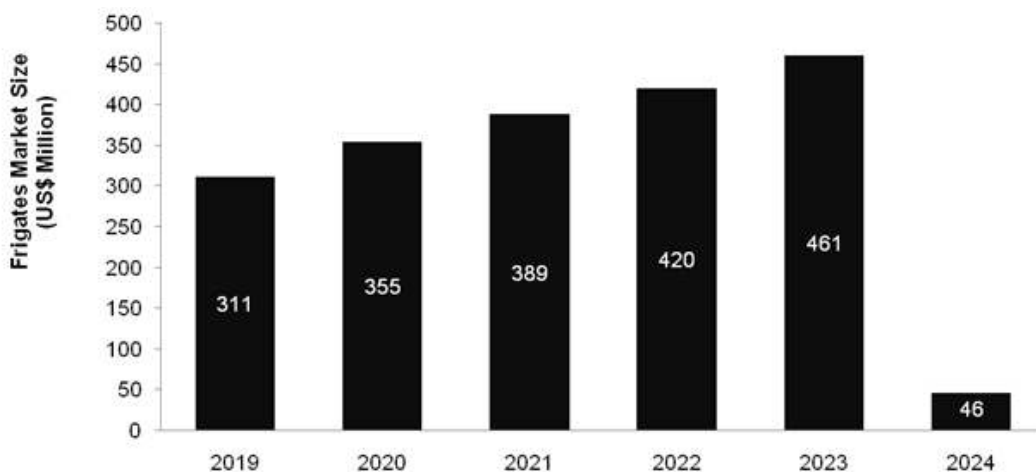
29)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28억 달러(약 3조 2,3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말레이시아는 프리깃함 획득에 3억 1,100만 달러(약 3,592억 원)를 지출했다.

- 각 연안전투함은 전자, 공중, 지상, 수중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췄다. 첫 번째로 인도된 연안전투함 1대는 2017년 처음으로 진수하였으며 2019년 중으로 해상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BNS에 따르면 이 6대는 2023년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상기한 Maharaja Lela급 6대의 연안전투함은 함정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완전히 건조된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다.
- 아래의 차트는 2019~2024년 향후 예측되는 말레이시아 내 프리깃함 시장 규모이다.

[그림 5-2] 말레이시아 내 프리깃함 시장 규모

(단위 : 미국 달러)



* 출처 : Global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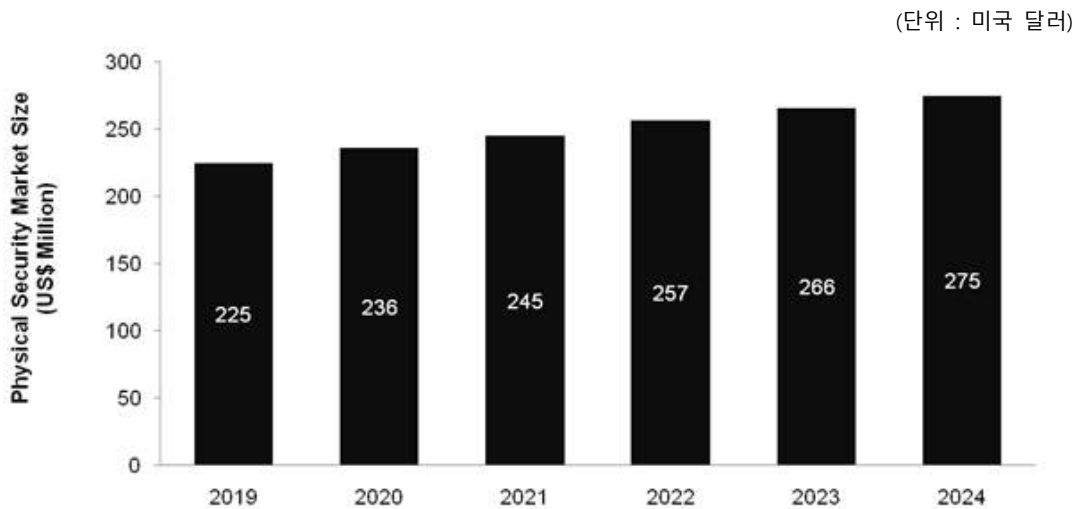
나. 시설보안(Physical Security)

- 주요 테러조직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정교하게 제조된 군 장비 및 기술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세계 도처의 여러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들은 국방 예산 할당을 증가시켜 민감 지역 보호, 경제 및 천연 자원, 국민을 보호하고자 국가적 보안 시스템과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레이시아는 고성능 감시카메라와 스크리닝 시스템, 연안 감시용

순찰 보트, 국경 경비 감시용 정찰기, 통신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2019년 물리적 보안에 지출한 금액은 2억 2,500만 달러(약 2,592억원) 규모이며, 연평균증가율 4.1%를 유지하여 2024년에 2억 7,500만 달러(약 3,168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아래의 차트는 2019~2024년 향후 예측되는 말레이시아 내 시설보안 시장 규모이다.

[그림 5-3] 말레이시아 내 시설보안 시장 규모



* 출처 : GlobalData

다. 콜베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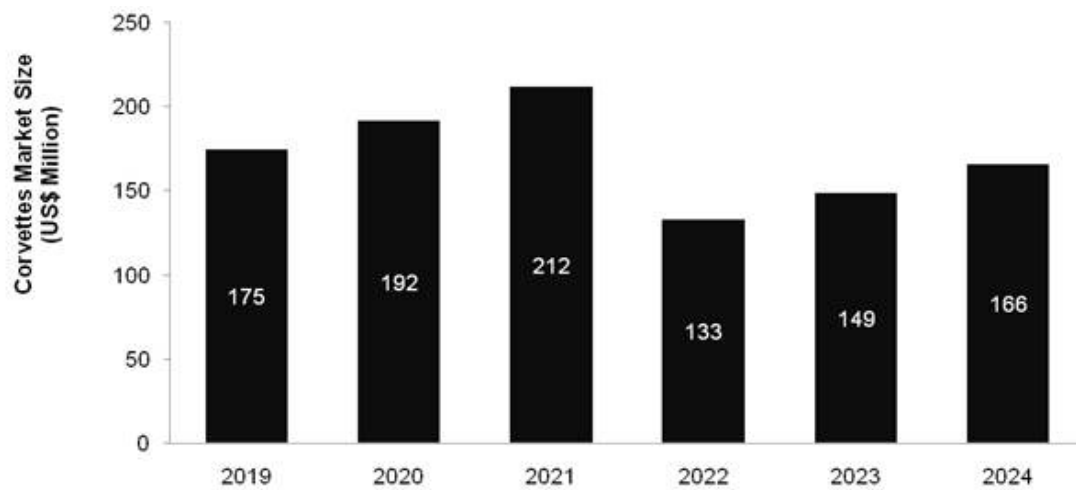
- BNS社로부터 구매한 프리깃함 이외에, 말레이시아는 콜베트함도 획득할 계획에 있다. 말레이시아가 소유한 콜베트함은 총 6대로, 이는 콜베트함 보유 대수로 세계 제 13위에 해당한다.
- 콜베트함은 프리깃함보다 크기는 더 작고 속도는 더 빠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러한 콜베트함을 연안임무함(Littoral Mission Ships, LM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콜베트함을 중국과의 합작 개발 협약 하에 2019년까지 총 18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2대는 China Shipbuilding & Offshore International Co (CSOC)社 주도로 중국 내에서 건조될 예정이고, 나머지 16대는 Boustead Naval Shipyard (BNS)社 주도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첫 1대는 2019년, 그 후 3대는 2021년까지 인도될 계획이다.
-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첫 번째 획득 계약으로, 건조 관련 기술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이 프로젝트에 1억 7,500만 달러(약 2,020억원)을 할애한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증가율 -1.05%로 2024년 1억 6,600만 달러(약 1,917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 아래의 차트는 2019~2024년 향후 예측되는 말레이시아 내 콜베트 함 시장 규모이다.

[그림 5-4] 말레이시아 내 콜베트 함 시장 규모

(단위 : 미국 달러)



* 출처 : GlobalData

부 록

1. 거래 시 유의사항

이 면은 공백임

부록 1.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의 시작

-  통상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눈 후, 명함을 교환한다. 명함 상의 지위는 의사 결정력, 비즈니스 경험 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되며 비즈니스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고위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준비하는 게 좋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장 직함의 영문명칭에 President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보통 Managing Director로 표기한다. Director 또는 General Manager 정도면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  상담 시작부터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날씨나 취미활동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가 적합할 수 있다. 처음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상담 전 시내 상가 나 백화점 등을 둘러보고 현지인들의 기호와 유행을 미리 파악하면 상담을 한결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물론 정치나 국가비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상용어이다. 통역에는 주로 현지 유학생이나 교포 등을 고용하게 되며 일일 통역비용은 160~200달러 수준이다. 최근 교민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개 통역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현지 교포자녀나 유학생인 경우가 많다. 통역원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상담 전 1~2시간 정도 사전교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이해 및 기본지식을 숙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비즈니스 관련 대화 시, 중국어 구사가 가능할 경우엔 상권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계와는 중국어 대화가 영어보다 유리하다.
-  바이어가 중국계이면, 니하오마?(How are you?), 짜이찌엔(See you again) 정도는 외우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다. 말레이계 바이어에게는 슬라맛 빠기(Good morning), 슬라맛 뻬팡(Good afternoon), 아빠 까바르?(How are you?), 프리마 까세(Thank you) 등을 상담 중간 중간에 사용하면 좋다.

나. 신뢰성과 적극성

- 상담 시 제품성능 및 기술정보 등이 수록된 제품설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샘플은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샘플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우수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관련 인증이 있다면 이 역시 상담 시 제시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도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담에선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지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있으나, 즉석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한 기일 내에 후속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상담 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기록하고, 반드시 답신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지 시장 협소 및 가족 단위 중소 무역기업이 많아 1회 오더 물량이 소규모이나, 일반적으로 일단 구매선을 결정하면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계약이 성사돼 제품을 선적할 때에는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 기타 무역업자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독점 에이전트나 현지 합작투자를 요구할 때가 많다. 이 때,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합작투자 여력이 없다면 상담 시에는 일정한 성과가 창출된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확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추후에 충분한 교신과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다. 문서화

- 말레이시아 바이어와 거래할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거래과정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통치로, 제도 및 관행이 영국식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서상의 격식과 문구의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 거래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레터 형식만 보고도 어느 정도의 회사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문서 송수신 시 문서번호(Reference No)를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향후 문제 발생 시에도 주고받은 문서는 문제 해결의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레터를 접수했다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한다. 회신이 없으면 바이어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결재 방식을 외상수출어음(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로 계약한 이후 바이어가 레터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수출업자의 대응이

미진하여 대금 미결제 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라. 결제 방식

- 일반적인 결제 방식으로는 향후 수입자가 지급이 불가능할 시 은행이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방식, 그리고 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는 송금(T/T: Telegraphic Transfer)방식이 있다. 결제대금이 거액인 품목은 은행의 지급 약속 없이 당사자들의 신용을 근거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D/A, 혹은 지급인도(D/P: Document against Payment) 조건 또한 많이 요구된다.

마. 바이어 상담

-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차림으로 약속 시각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상담 전 영문 1~2장으로 요약된 제품성능 및 기술정보 등이 수록돼 있는 제품설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그리고 설명서를 파일로 송부할 경우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 1Mb 이상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샘플은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샘플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우수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관련 인증이 있다면 이 역시 상담 시 제시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
- 서류, 명함 등을 건네줄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이슬람 신도들의 경우 왼손은 용변 후 뒤처리 등에 사용하여 불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지인들은 이름 앞에 Dato(남작), Datuk(백작), Tan Sri(후작) 등의 작위나 Dr, Ph와 같은 학위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므로 호칭에도 붙여주는 것이 좋다.
- 말레이시아에서의 식사 접대에 있어 무슬림의 경우엔 non-halal 음식은 피해야 하며, 음주보다는 식사 접대나 선물 증정이 바람직하다. 식사를 할 때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요리한 음식만 제공하며 할랄 인증 마크가 음식점 앞에 붙어 있음) 음식점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중국계와 인도계 중에는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으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요리를 시킬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식사 메뉴는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닭고기 요리가 무난하다.
- 정치 및 종교 관련 화제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양국 문화, 역사, 요리

등에 관한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첫 상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바이어가 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권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계와 면담을 할 때 중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면,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영어보다 좋을 수도 있다.

바. 방문시기

- ❖ 국가적으로 가장 큰 명절은 피하는 게 좋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명절은 ‘하리라야’로,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자 이슬람 달력의 10번째 달인 샤왈의 첫째날이다. 이 기간 전후로 휴가를 많이 가므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에 식사나 물을 섭취하지 못하므로 장시간에 걸친 상담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해당 기간엔 무슬림 앞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실례이다.
- ❖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미팅 때 있었던 일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사를 방문한 손님에게는 물이나 차를 내온다. 한국 기업은 면담과 제품설명이 길어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말라 미팅룸에 비치된 생수를 많이 마시게 됐다 . 면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한국 기업인이 미팅룸을 나가려고 할 때, 자신은 물을 2병이나 마셨지만 상대의 생수병은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말레이시아 바이어에게 왜 물을 먹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말레이시아 바이어는 라마단 기간이어서 마시지 못했노라고 답변을 했다. 우리기업인은 라마단 기간임을 감박하고 면담을 요청한 점과 자신 혼자 물을 마신 점을 거듭 사과했다.
- ❖ 이슬람교도들의 금식기간인 라마단 1달간은 보통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체의 음식과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돼 있다 .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이 기간 중에는 무슬림 비즈니스맨 들과 면담일정을 길게 잡지 않는 것과 오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 온라인 무역

- ❖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온라인 무역사이트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구글 등으로 검색해 보면 다수의 무역사이트가 나온다.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적정 바이어를 찾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이어의 진위여부 이다. 자사 홈페이지도 아닌 무역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사정보는 해당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 무역사이트로 말레이시아 기업을 발굴했을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온라인 무역사이트에 핸드폰 번호만 나와 있을 경우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및 인근 셀랑고르주의 전화번호는 +60(국가번호)-3(지역번호)-2117-7100 (해당번호)의 형태이다. 한편 보통의 말레이시아의 핸드폰 번호는 +60-10-2117-7110 처럼 지역번호에 해당하는 번호가 보통 2자리이다. 통신사가 TM Berhad이나 Celcom이면 013, 019, 0148, Maxis이면 012, 017, 0142, DiGi면 010, 016, 0146, 014-30, 014-31, 014-32 U Mobile이면 018이다. 그러므로 전화번호가 +60-12, +60-19, +60-17 형태로 시작하면 유선전화기 아닌 핸드폰 번호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둘째, 한국의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기업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 전화 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면 기업등록번호(Company Number)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설립 시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되면 기업고유의 번호가 부여된다. 말레이시아의 정상적인 기업은 명함에도 기업등록번호가 나와 있다. 기업등록번호의 형태는 191933-D, 994252-W, 20076-K, 339890-P 와 같이 ‘숫자6자리-알파벳’의 형태이다. 특정 기업이 등록번호가 있고, 그 등록번호가 거짓이 아니라면 재무상태를 불문하고 최소한 말레이시아의 합법적인 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등록번호를 알면 말레이시아 신용정보회사 DB를 통해 재무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어 기업등록번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셋째, 기업 자본금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업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자본금 2링깃(약 720원)만 있으면 기업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설립 > 사업장 면허(Business Premise Licenses) > 상호면허(Signboard Licenses) > 각 사업별 필요한 면허취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 자본금이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없거나 브로커 기업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에 여러 건에 걸쳐 기업정보가 등재돼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무역 기업은 중간의 에이전트나 브로커 없이 제품생산자와 직거래를 희망한다. 이에 한국기업들도 말레이시아 기업의 신용도를 염려하지만 말레이시아 기업 역시 한국기업들이 믿을만한 거래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 1-2곳에 거래희망 정보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기업의 거래희망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에 무질서하게 게재돼 있다면 이 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복수 등재 확인은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해당 기업의 상호명을 입력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면은 공백임

참고문헌(국외)

- (1) "Trend Indicator Values(TIVs)",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2018), SIPRI, 2019.
- (2)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8", SIPRI Fact Sheet, 2019.
- (3) "POLICY AND GUIDELINES ON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ME (ICP) IN GOVERNMENT PROCUREMENT SECOND EDITION", Malaysian Government, 2016
-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19.
- (5) "The Military Balance 2019", 2019.
- (6) "World Fact Book 2018-2019", CIA, 2019.
- (7) "Malaysia-Armed Force",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s, Jane's, 2019.
- (8) "Malaysia-Defense Budget",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s, Jane's, 2019.
- (9) "Malaysia-Air Force",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s, Jane's, 2019.
- (10) "Malaysia-Army",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s, Jane's, 2019.
- (11) "Malaysia-Navy",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s, Jane's, 2019.
- (12) "Market Report-Malaysia", Jane's, 2019.
- (13) "Malaysia Section 1-Data", Forecast International, 2019.
- (14) "Malaysia Section 2-Market Overview", Forecast International, 2019.
- (15) "Malaysia Section 3-Force Structures", Forecast International, 2019.
- (16) "The Future of the Finnish Defense Industry", Global Data, 2018.
- (17) "Malays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4", Global Data, 2019.
- (18) "Malaysia Defence & Security Report", Fitch Solutions, 2019.
- (19) "3rd Edition Industrial Collaboration Program Policy: A New Beginning", TDA, 2015.

참고문헌(국내)

- (1)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 장원준·김미정, 2016.
- (2)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2019.
- (3)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 2019.
- (4)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KOTRA, 2019.
- (5) “국가지역정보-말레이시아”, KOTRA, 2019.
- (6) “외국 군구조 편람”, 공군본부, 2015.
- (7) “외국 군구조 편람”, 공군본부, 2015.

말레이시아 방산시장 동향보고서

A Study on the Defense Industry Market for Malaysia

작 성			
성 명	분 야	전화번호	E-mail
권연경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94	ykkwon@dtaq.re.kr
참여전문가			
방산수출지원센터			
검토 및 자문			
방산수출지원센터			
확 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수출지원1팀장 선임연구원 원준호		